朝鮮日報
夕刊
二十二日(金)

鍾路分館

北中時局에對한英米側의觀測

事態急迫遷延은 海軍軍縮會議에 實現되면英米蘇接近

英

【倫敦二十一日發電通】北中自治委員會의成立이豫想以上으로遷延되는情勢에對하야 英國官邊은安堵하는비츨보이고잇다 即今日의情勢로보면 九個國條約署名國의會合을 要求할必要도업고 事態는 平穩化를示現하고잇다 그리고 當地駐在外交團方面에서는 日本軍部가 故意로 事態의 急迫化를 遷延하고잇고 海軍會議開催를압두고 英米將來提携의結果를 念慮하야 時機를 窺視하고잇다고 觀測하는一方 二十日華盛頓에서 會見한 린데駐米英大使와 필립스米國務次官과의會談에 關하여는 政府當局에서는全然一般的事態에關한 意見交換에 끈첫스나 英米兩國關係는 今後에도密接을 繼續하기로 決定하엿다고稱한다

米

【華盛頓二十一日發電通】北中自治委員會의成立이 그後豫想外로遷延되여 自治宣言發表도 遷延할 模樣이라는 情報를入接한當地官邊에서는 表面沈默을 하고何等의 意思表示를 迴避하고잇스나 저윽히 安堵하는 비치보이는것은 掩蔽할수업다 그리고當地 駐在歐羅巴 諸國外交團方面에서는 最近北中에잇서서 日本의 活潑한活動에對하야 深甚關心을 抱懷하고 事態의 推移를重大視하고잇는데 北中自治委員會가 不遠에 形成될時에는 北中에잇서 新事態에對處하기爲하야 英蘇乃至 米蘇關係는 依然接近의度를加하야 日本牽制工作으로 나오지안흘가하는 觀測을 看過하고잇다 米國消息通側에서는勿論 이에對하야 終始愼重한態度를取하고 目下容易하게 動할氣勢를보이지안코 專然形勢를熟視하고잇다

平津方面의外交戰 活潑하게展開

各國大公使集中

【上海二十一日發聯合】英國大使카도간氏는 二十日上海를 出發하야 急遽 北平에 赴하엿는데 伊太利大使도마고노氏 蘇聯大使보고모로프氏 獨逸大使트라우트만博士 白耳義公使기올氏等도 今明兩三日中에 서로前後 하야北平에赴할터이다 그리고 米國大使존슨氏도 上海에서 카너副大統領과會見한後 二十六日 飛行機로 北平에赴할터인데 華北新政權樹立을 압두고 各國大公使는 平津地方에서 活潑한 外交戰을 展開하리라고 觀測된다

自治運動武力彈壓

【天津二十二日發聯合】二十一日市商會에 集合한 三千餘名의民衆의一部는 市內로 繰出하야 市政府公安局에向하야 自治促進의 請願을試하고잇는데 程克市長 劉玉書公安局長은 此를 鎭壓키爲하야市內各要所에 機關銃을 備置하고 或은 便衣隊를 潛入식혀 民衆運動을 武力으로써 防壓하려하므로 民衆은反對로 此種自治運動을防害하는것은 言語道斷이라고 憤慨하야 마츰내 不穩한 空氣가 醞釀하게되엿다

專任外交部長에 張群氏로內定

【上海廿一日發電通】日中交涉進展上 國民政府의 專任外交部長任命은 急速히 實現을 보게되어 湖北省主席張群氏로 內定된模樣인데 二十日夜의 有吉大使蔣介石氏의 會談에서 非公式으로 그旨를 傳하엿다고 確聞되다 그리고 正式任命은 五全大會終了後 中央政治會議의 追認을 기다려 發表될터이다

閻錫山氏北上 蔣氏內命을밧고

【南京二十二日發聯合】太原綏靖公署主任 閻錫山氏는 兩三日內에 南京을 出發하야 爲先 太原에 歸還하기로 決定하엿다 北上後 蔣介石氏의 意向을 體하야 華北自治工作離間에 奔走하리라고 觀測된다

日比親善機華北安着

【華北二十一日發電通】大鯨、東日의 日比親善大鯨號는 二十一日午後二時六分 華北飛行場에着陸하엿다 二十二日午前六時 日本內地로 向하야 歸還할豫定이다

海軍軍縮會議와그前途

米國海軍政策은 太平洋作戰主義 (八)

雲崗生

다음 오는 倫敦海軍會議의 成敗如何를 卜하는데는 米國의 海軍政策을 理解할 必要가 잇고 또 米國의 海軍政策을 理解하는데는 그所謂 太平洋作戰主義 또는 渡洋作戰主義의 何者임을 알어야 될 必要가 잇다. 米國海軍의 作戰은 一九二四年(大正十三年)에 에베리提督의 軍令部長時代에 파나마運河地帶를 中軸으로하야 大西洋方面에서는 守勢、太平洋上에서는 攻勢를 取하기로 決定햇다. 그意味하는바를 簡單히 말하면 歐洲諸國에 對해서는 守勢를 取하고, 日本에 對해서는 攻勢를 取하겟다는 말이다.

『米國海軍政策』이라는 米國海軍自身이 發表한 冊에 依하면 거기는 米國海軍은 國策遂行의 機關이다. 라고 잇다 그러면 海軍의 兵力을 가지고 支持치아니하면 안될 米國의 國家政策이란 무엇이냐하면 (一)歐洲諸國에 對하야 南北아메리카大陸保全을 爲하야 한『몬로』主義와, 主로 日本에 對하야 中國에서의 機會均等을 爲한 極東門戶開放主義다. 米國의 前軍令部長에베리大將은 米國海軍을 代表하야 『몬로主義擁護를 爲해서는 防禦的海軍으로 足하나, 中國에의 門戶開放主義를 遂行하기爲해서는 아모리하야도 大海軍이 아니면 안된다.』 라고 議會에서 公言햇다. 에베리大將의 이말은 어떠턴 다른 米國海軍代辯者의 입을通하야 『몬로主義를 爲해서는 守勢海軍으로 足하나, 極東門戶開放主義를 爲해서는 攻勢海軍이 아니면 아니된다.』 라는 簡單한 말로 發表되엿다 또, 일즉 世界大戰當時에 米國海軍의 先陣을 마럿든 勇將라우씨그大佐는 『極東門戶開放主義야 말로 우리米國의 未來國策이오,또,海軍의 最終目的이다。』 라고 明言하야 米國海軍의 目標가 어듸잇다는것을 스사로告白햇다.

또 一九三〇年度、米國議會上院議事錄을 보면 거기는『米國海軍의 太陽』이라는 稱을 밧는 海軍大將의 말로 『우리는 百年以內에 中國을 爲하야 彼(中國)의 戰爭을 도와서 싸우지안흐면 안될는지 모른다.』 라는 一節이 잇다。『百年以內』라면 느즈러진 말가트나, 그것은 『가까운將來』라는 意味다. 以上、海軍代辯者諸氏의 所言을 보면 米國의 大海軍은 決코 虛榮的裝飾物이 아니요, 또 遼古歲의 歐洲遠征모양으로 單純한 武斷的征服慾에 驅使된것도 아니요, 그海上作戰의 裏面에는經濟國策의 大影이 潛在한것을 알수가 잇다。米國海軍은 經濟戰에 武力을 要할 時期가 到來할것을 豫期하고 熱心으로 太平洋作戰의 硏究를 싸아오지가 발서 十有餘年이다. 以上으로 우리는 極東門戶開放主義를 擁護하기爲한 米國海軍은 日本을 假想的으로하야 太平洋作戰에 그專力을 다하고잇슴을 알수가 잇다。그런데 이것을 가르처서 米國海軍의 渡洋作戰主義 又는太平洋作戰主義 或은攻勢海軍主義라고 하는것이다。米國海軍의 主義가 이러한故로, 그의 艦隊는 大西洋보다 太平洋에 主力하는 同時에 假想敵과의 決戰地가 遼遠한 關係로 그는 必然的으로 大艦巨砲主義를 쓰게 되는것이다. 何故오하면 軍艦이 크지 못하면 五千海里의 太平洋上에서 뜻과가티 活躍할수가 업고、또한 大砲가 크지아니하면 마음대로 攻勢를 取할수가 업겟기때문이다. 좀더 仔細히 말하면 軍艦이 大하고, 砲가 巨하면 두가지가 兩兩相俟하야 攻勢를 取하기에 有利한것이다.

米國은 이러한 海軍政策을 가젓는故로

一、英國이 主張하는 備砲及單艦噸數縮少主義에 反對요,

二、日本이 主張하는 軍縮平等主義, 比率撤廢主義, 總噸數主義, 主力艦及航空母艦의 大縮減 又는全廢主義에 모주리 反對하되, 그程度는 거이 絕對다.

何故오하면 米國의 渡洋作戰主義는 大艦巨砲를 要하는 故로 米國의 보장대로 말하면 主力艦의 單艦噸數 三萬五千噸도 오히려 적어마슬것이며, 同備砲口徑十六吋도 오히려 짤버마슬것이다. 이러한 立場에 잇는 米國으로서 主力艦의 單艦噸數를 二萬五千噸으로 十四吋로 주리자는 英國의 主張이 비위에 맛지아니할것은 大槪 定한 理致일것이며, 더구나 米國海軍의 거의 唯一한 假想敵인 日本의 主張을 그대로 容認할 理致가 업슬것이다.(續)

各國大公使、續續 北平向하야出發

英經濟特使레氏도急遽北上 新情勢緩和工作開始?

【上海二十一日發電通】北中自治問題는 漸漸 重大化하여가므로 列國側에서도 注視하고잇슨 이때에 英國駐中大使 카도간氏가 二十日 南京經由 北平에 向한 外에 伊太利、獨逸兩大使 白耳義 丁抹 兩公使도 一兩日中에 北上하며 또 쫀슨米國大使는 二十六日 上海發 飛行機로 北平에 向할 豫定인데 各國大公使는 只今 北中에 集中하고잇다

【上海二十一日發聯合】中國幣制改革의 큰 演劇의 主人公노릇을한 레이드·로스氏는 幣制改革을 契機로 北中의 財政獨立機運이 濃厚하고 잇슴에 鑑하야 當地에서의 英中財政 提携工作을 一段落식히고 急遽二十二日午後四時五分 當地發列車로 北上하며 또 쏜스米國大使는 二자스 專門委員同伴으로 天津北平에 向하기로되엿다 北中의事態에對하야如何한工作을할는지注目된다 (寫眞은 레이드롯스氏)

【南京二十一日發聯合】國民政府는 南京의 日中兩國間의 外交交涉을 利用하야 華北에 對하야 自治宣言發表延期를 策하고잇는데 또 카드간英國大使를 動하야 情勢의 緩和를 策하고잇다고 解釋되며 카드간大使는二十二日頃 急遽北上할 豫定이다

宋哲元氏도自治運動斷念

北中時局遂頓挫

蔣介石氏의離間工作이奏効 部自治派切齒痛憤

【北平二十二日發電通至急報】蔣介石氏의 猛烈한 離間은 最後까지 摯拗하게 努力하든 宋哲元氏도 說服식혀 北中自治運動은 마침내 挫折되엿다 (寫眞은 宋哲元氏)

【北平二十二日發電通至急報】北中自治運動은 宋哲元氏가 唯一하게밋든 韓復榘氏가 軟化되고 蔣介石氏의 懷柔는 北中當局의 그리 重要하지안흔者와 民間에까지미처 宋哲元氏로하여금 꼼짝도못하게 만드러 一部自治派가 切齒扼腕하엿스나 마침내 未及하야 宋哲元氏自身도 亦是 最後의決意를 鈍케하야 時日을 遷延한結果 이미 時機를 노처 時局은 一段落을 지은模樣이다

侮日에對하야는 適當手段講究

軍中央部極度로憤慨

【東京電話聯合】北中의 自治運動解決辦法으로 蔣介石氏로부터 提示한 內容에關하야 軍中央部에서는 아직詳細한 報告가 到着하지못한 模樣인데 中央部의 意向은 自治運動의 勃發當初부터 同情的靜觀의 態度로終始하여왓다 今後에도 이態度를 不變할것은 勿論이나 南京政府가 今回의 自治運動을 마치日本側에서 關與한 事實이 잇는드시 解釋하고 逆宣傳을 하는一方蔣介石氏는 有吉大使와의 會見에잇서 廣田外相으로부터蔣作賓駐日大使에게 提示한 三大原則을 承認할代償으로 日本側이 全然關知하지못하는 北中自治宣言, 自治運動의 中止를 要求하는 言辭를 弄하는것은 斷然許할수업다하야 憤慨하는빗치 極히 濃厚하다 그리고 南京政府가 이와가티 不誠意하다고하면 日本側으로서도 正正堂堂한 立

日本側엔妥協的 北中에는威脅!

蔣介石氏의二重策略

【北平二十二日發聯合】蔣介石氏는 北中首腦에對하야 有吉大使와의 會見에 際하야 華北自治運動은 絕對容認할수업다고 回答하엿다고 傳하야 表面强硬的態度를 取하는同時에 裏面에서는 그懷柔策에 狂奔하고잇는 一方 日本側에 對하여는

一、北平軍事分會의取消

一、航空連絡의實施

一、通車通郵問題의 未決定事項等의 即時解決을 提案하야 自治運動의 緩和斡旋을 希望하여왓는데 日本 現地官憲은 此를 一蹴하는同時에 二十一日北中 各首領에 對하야 中央의 懷柔策에 乘하야 北中民衆의 意見을 無視할 時에는 民衆은 蹶起하리라는 警告를 發하엿다 司令을 發하고 更히 第二十九軍의 蹶起도 促하는 一方 一般民衆도 宋、蕭等의 不信行爲에 排擊的空氣가 濃厚함으로 宋哲元의 立場은 苦境에 陷하여잇다

宋哲元氏 軍職辭免은不可避

【北平廿一日發電通至急報】蔣介石氏는 有吉大使와의 外交工作에 依하야 北中自治政權樹立의 最終點에서 挫折되여 中央政府의 威嚴을 維持하게되엿는데 宋哲元 蕭振瀛等이 自治運動의 主唱者로 中央에 反旗를 든것은 國家에對한 反逆者라하야 不遠한後機會에 宋哲元氏의 平津衛戍司令을 罷免하리라 한다

汪精衛氏 又復下野決意

【南京二十一日發聯合】行政院長汪精衛氏는 病氣靜養을 口實로 二十一日 突然南京에서 上海로赴하엿는데 病氣靜養은 名目에不過하고 汪精衛氏는 이미 下野決意를 鞏固히하엿다고 傳한다

宋氏의態度에 軍部決議强硬

【北平二十一日發電通】北中自治運動最後의段階에서 態度를一變한 宋哲元、蕭振瀛兩氏에對하야 當地軍部는 그措置를 嚴重考慮中이다 面에서 現實行動에 即하야 有效適切한 手段을 取하지 안흐면 안되게 될것이다 宋哲元氏의 態度는 保安隊關係의 一致하지못한것도 아직解決되지못하엿다 그러나 今日의 約束은 信用할수업다 이제 決意를 보이고잇다

何應欽氏近日北上

現地官憲과折衝

國府、地方的具體問題로써解決

【北平二十一日發電通】北中時局解決을 爲하야 蔣介石氏는 近近軍政部長何應欽氏를 北上식혀 北中最高機關으로 華北軍政整理委員을 北平에 設置케하기로되엿다고傳하는데 一方 日本側과의 現地外交交涉에 當케하기爲하야 目下南京에서 有吉大使와 折衝中인 外交次長唐有壬氏를 近近北上식혀 天津에서 多田天津軍司令官及 北平高橋武官及武藤大使館書記官等과 會見하고 地方的 具體問題의 解決에當케하기로決定하엿다한다(寫眞은何氏)

張群氏도北上活動

【南京二十一日發聯合】蔣介石氏는 二十日 有吉大使와의 會見結果에基하야 一兩日中에 懷刀湖北省政府主席張群氏를 特使로 北上식혀 北中自治工作의 離間 華北의 離脫阻止에 最後的努力을 傾注하기로 決定하엿다고確聞한다 特使張群氏는 北上하야 日本軍事當局과도 協議折衝을 遂할터이라고 解釋된다

【南京二十一日夜】軍官學校官邸에湖北省主席 張群氏外 蔣作賓 何應欽 孔祥熙氏等의 最高要人을 招致하고 北中情勢 日中兩國關係打開에對하야 重要安協을 遂하엿다

孔祥熙氏 行政院長事務代理

【南京二十一日發聯合】汪精衛氏는 上海의宣病院에入院하야 暫時靜養하기로된 結果 行政院副院長 孔祥熙氏가 院長事務를代理하기로되엿다

蔣氏諸要人과協議

【南京二十一日發聯合】蔣介石氏

三巨頭連名으로 北中에自重要望

蔣介石、馮玉祥、閻錫山三氏가 宋哲元、韓復榘、商震三氏에게

【南京二十二日發聯合】蔣介石氏는 二十一日夜에다시 關係要人과 協議하고 有吉大使와의 會見內容을 詳細說明한後 北中의新情勢에對應할方策을 協議하엿는데 協議한結果 北中實力派要人에 對하야 中央의意見을充分傳達할 必要가잇다는데 意見一致되여 蔣介石 閻錫山氏及 馮玉祥氏等巨頭의 名下에 平津衛戍司令宋哲元氏 山東省政府主席韓復榘氏 河北省政府主席商震氏等에게 通電하기로 決定하엿다 右電報에잇서 三巨頭는 北中에關한 中央의方針을 闡明하야 國步艱難의際 自重을 要望한다는 旨를 强調한것이라고 解釋된다

八面鋒

◇資源再分割論을 主張하야 貧乏한 强國의 好意를 산 하우스大佐、今次는 人種偏見論을 排擊하야 白人種의 優越感을 警告.

◇白人種이 有色人種에게 壓迫되것은 中世代에 匈奴의 侵歐를 으뜸으로、四十年前의 에디오피아의 伊太利擊退、三十年前의 日露戰爭을 들수잇다.

◇方今의 伊에戰爭은 어떠한가。하우스大佐의 警告도 이미 陳腐한 理論。

◇南島서 十六萬圓의 銀貨密輸하야 仁川에 上陸한 靑年二名이 잇다.

◇一國서 死刑을 밧는 犯罪者가 一旦 他國領海에 드러서면 富를 增殖한 愛國者가 된다.

◇國際法은 여기에도 矛盾.

◇今日로써 湖南에 天氣는 흐릿흐릿、그러나 鐵蹄은 안개를 뚤코 南으로 南으로.

天津市內는 戒嚴狀態

【天津廿一日發聯合】天津市長程克氏는 自治促進運動의 重大化를 念慮하야 二十日夜來 天津市內要所에 武裝警備線을 配置하고 嚴重警戒에 萬全을 期하고잇다 目下 市內는 保安隊、警官隊의 巡邏警備로 戒嚴狀態를 呈하고 數十名의 便衣市民은 運動嫌疑者로 公安局에 檢束되엿다

重要案件에對한 大藏省態度決定

【東京電話聯合】大藏省에서는 別項과如히 豫算省議의 延期에 依하야 豫算編成의 圓滑을 圖謀코저 國防豫算을 비롯하야 今日까지 各省豫算中 保留된 重要豫算도 二十二日까지 豫算省議에서 收拾하야 高橋藏相의 決裁를 어더서 解決키로되여잇스나 地方財政調整交付金 農村經濟更生計畫 特別補助 臨時義務敎育費 國庫負擔及商工金庫案에 對한 大藏當局의 意는 大體如左하다

一、地方財政調整助成 內閣調査局案을 中心으로하야 今後內務省과 交附方法에 對하야 折衝할것이나 調査局案은 아즉總花的色彩를 幾分包含하고잇슴으로 이것을 更히 改善하야 可及的交附金의 配分을 窮乏町村만으로 限定할 方法을 講究하고 또金額은大體二千萬圓이나 豫算은 이것을 本豫算에 編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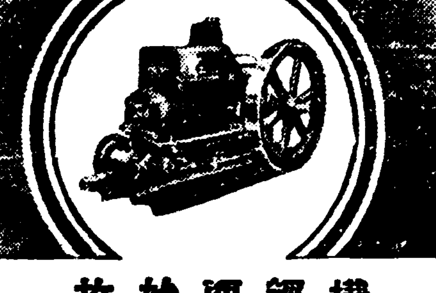
一、農村經濟更生計畫特別助成 農林省案에 基하야 助成金交附町村의 數를 圖謀할것과 單價의 切下를 行하야 金額에 잇서서는 約三百萬圓을 限度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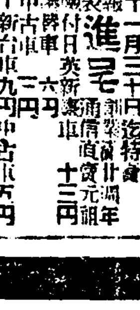
一、義務敎育費臨時國庫負擔 從來의 九百萬圓의 補助金餘額하고 二千萬圓의 地方財政調整助成金으로서 이것을 補充함

一、商工中央金庫 商工省案을 更히 檢討한後 二十二日까지 高橋藏相의 決裁를 어더서 豫算附請에 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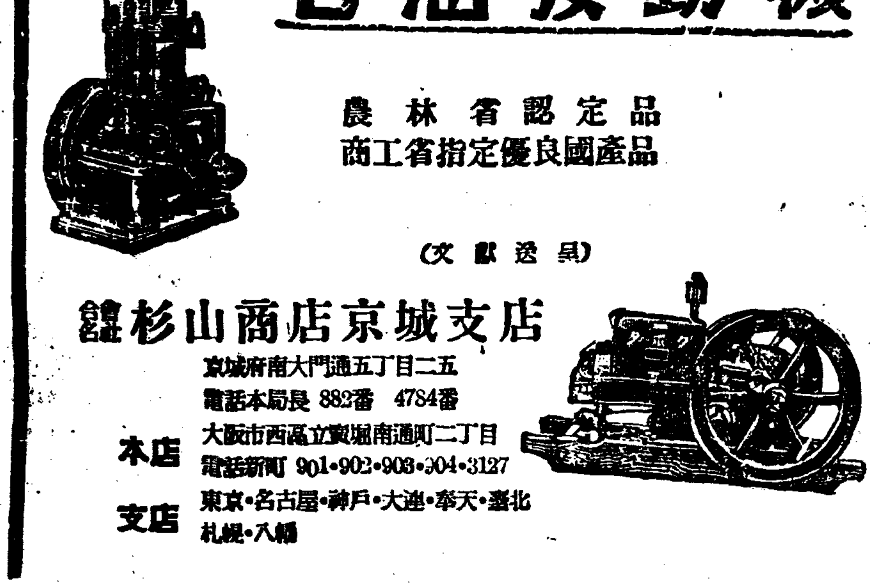
人事·集會

▲今井田總監 總督府明年度豫算其他에 對하야 中央과 折衝코저 明二十三日午後三時京城驛發 노조미로 約一個月豫定으로 渡東





婦人病、皮膚病、動脈硬化 神經痛、痔疾、冷症
特許 登錄 太一ハップ
特約店 藥店에잇슴
家庭湯治藥 一浴有效
一日단지五錢으로、一家健康



朝鮮共黨再建事件 開廷直後公開禁止

權榮台의事實審理에들어가 三十四名全部出廷

국제공산당의 지령을 바더가지고 리재유(李載裕)권영태(權榮台)의 두일파가 각각조선에드러와 다각히 조선공산당을 재건할 목적으로 경성을 중심으로 전조선각지를 총망라하야산업별 적색로동조합(產業別赤勞)을 비롯하야 반제동맹, 독서회등을 조직한 사건으로 지난 소화팔년구월 서대문경찰서를 본부로 전조선적 대량검거를 당한 「산업별적색로동조합」 사건관계자 권영태등 삼십사명에 관한 제일회공판은 드듸어 이십이일 오전아홉시 오십오분부터 경성지방법원 특별법정에서 산하(山下)재판장담임, 대판(大阪) 검사의 립회로 개정되엿다 당일 피고 삼십사명전부는 개정시각보다압서 형무소전용의 세대의 자동차를 다섯번에 나누어 서대문형무소로부터 바로 법정에 출정하엿는데 오랜 미결감의 생활로안색은 모다창백하엿스나 전부 건강은하엿다 그리고 삼십사명 가운데서긴네명의 녀자도 건강한빗스로 네사람 나란히안저 심리를기다리엇다 피고들의 신분전검이잇슨뒤 피고들은 여러가지 요구조건을 제출하엿스나 드러주지 안엇기때문에 한참동안소란을 이르키고 권영태의심리가 시작되자 공일반방청을 금지하고 가족들에게만 방청을 허락하엿다

審理는一名뿐 廿五日에續行

잇섯다 별항과가티 공개금지리에 권영태의 심리를 계속하든중 권영태는 다시 일반피고들의 요구를 드러달라고하며 심리에순순히 응지안흠으로 재판장이퇴정을 식히고 다음순위인 정태식(鄭泰植)과 한륙홍(韓六洪)은 심리를 끄트로 미루어달라고 자청하여 재판장은 그요구를 들어서 김대용(金大容)의심리를 시작해가지고 정오에 일단휴정을 하엿다가 오후한시에 계속개정하야 동삼십오분에 김대용의 심리를끗내고 폐정하엿는데 계속공판은 오는 이십오일이다

被告住所氏名

鄭泰植(三二)韓六洪(三一)金大容(三一)金晋成(三一)安炳洙(三一)安鍾瑞(二八)朴昇斗(二五)徐升錫(二五)金熙星(三一)崔慶玉(三〇)李元奉(二七)安炳春(二七)李丙驥(二九)마리아(二六)安三遠(三六)李順今(二五)李景仙(二九)鄭七星(二六)李鉉相(三〇)崔小福(二四)邊雨植(三〇)南萬熙(三二)任淳得(二五)李百萬(三〇)鄭龍山(三〇)金三龍(三一)金元鎭(三一)李康出(二九)沈承文(二九)卞洪大(三一)朴鼎斗(三一)崔永昌(三一)

人事를請求하는等 各被告質問續出

質問이審理進行妨害된다고 被告一名에退廷命令

규례에 따러 재판장으로부터 피고일동의 주소, 성명, 직업, 변력등을 뭇고 이어 검사로부터 기소리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잇슨뒤 권영태로부터 심리를 시작하려고할때에 피고 남만희(南萬熙)가 이러서서 우리 동지일동은 그동안 오래 맛나지 못하엿스니 절례 잇다는 말도 드리겟는즉 진서를 어지럽히지 아니할 범위에서 서로 인사를 식혀달라고 요구하엿고 최경옥(崔慶玉)은 좀더 강경한 태도로 피고인동에게 대하야 재판장에게 요구조건의 유무를 무러달라고 하엿다 뒤이어 리현상도 이러서서 산하재판장이 이십일 형무소에 와서 피고를 맛나보앗슬때 그때에 될수잇스면 다른배석판사와 협의하야 공개금지를아니하도록 하겟다는 말을하엿는데 그요구가 승인되겟느냐고 재판장의 대답을 요구하엿고 변우식(邊雨植)박정두(朴鼎斗)등도이러서서 집분을 하려하엿스나 권영태의 심리가 그대로 시작되엿다 이것을 보고 리백만(李百萬)은 우리의 요구를 아니드러줄려면다만 서류를가지고 공판을해도조흔것이지 이러케 불래내일필요는 업지아니하냐? 우리의요구를 드러주지아니하는 공판은밧지 아니하겟다고 강경히 말을 하엿고 리현상(李鉉相)이 다시이러나 무슨 말을 하려하매 재판장은 심리를 방해 한다하여 퇴정을 식히엿다 그리하야 피고의 법정투쟁은 불성공으로권영태의 심리를 계속하엿는데 권영태의 싸베—트 로서아에드려간 이후의 사실이 심리되려하자 열시 사십오분 공판은 공개를 금지하고 그대로 계속되엇다

傍聽客이殺到 警戒도嚴重

前敎授三宅夫人도傍聽

당일 방청인은 경향각지에잇는 피고들의 친족을 비롯하야 주로 학생 인테리층이 거의 전부로 대법정은 개정전에 발서 만원이되어 법정밧게서 방황한사람도 적지아니하엿다 그리고 당일의 경계를 담당한서대문서에서는 길야(吉野)고등계주임이하 삼십여명의 정사복경관이 법정주위를 물샐틈도업시 삼엄한 경계를하엿다 법정의내외와 방청인에대하야는 그러하엿고 달리 서대문형무소에서는 산내(山內)전옥이하 다수한 간수가 주로 피고들의 감시를하엿다 그리고 특히 방청인의 주목을끌기는 이사건에 큰관계를가지고 이미 분리파결을바더 복역중인원경성제대교수 삼택록지조(三宅鹿之助)의 부인 수자(秀子)녀사가 뒤늣게 방청석에 나타나서 종용히 귀를 기우리고

=朝共公判畫報= 상은 피고입장광경, 중은 법정문전의 방청객들, 하는경계순사들

◇寫眞은 湖南으로發程하려는本社機

湖南에本紙空輸 今日·本社機發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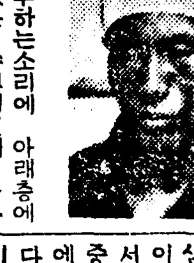
天候不順도不顧하고豫定대로 愼飛行士勇躍操縱

호남(湖南)지방의독자에게보내는 오늘석간을 가득이실은조선의공중의『파보리』본사기『조선제일』호는이십이일오후한시신용욱(愼鏞頊)비행사의 조종아래용약하야 여의도(汝矣島)비행장을떠나 기수를남으로돌리어 일로목적지로 향하엿다 이날은아츰부터 반도를에워싼 기상배치가 자못 안정을일허서 험악화할염려가잇다는 기상통보가 뒤를니어드러오거만 오직본사의 사고를보고 이날본사의 공중의전령을 고대하고잇슬 호남수만독자에 『뉴—쓰』를전하려는 미중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장도에 오를것이다 정각이되자 비행장에는 본사서(徐)주필이하 여러사원의 전송을 바드면서 신비행사는 표연히 기상의 사람이되엿다 이리하야 만천하 인사의 압도적 지지와 성원아래 우리신문사상 공전의 긔록을남길 본사의 신문공수비행도 예정대로 제이단의계획수행에 드러섯다

今曉櫻井町에 短刀强盜또出現

主人과格鬪中隣人이모여逮捕 犯人은東京서出監한南原出生

이십이일 오전세시이십분경 부내앵정정(櫻井町)이정목 구십륙번지 수회행일(須和幸一)(三二)의집에 괴한한명이 기리일곱치가량되는 칼을가지고 뒤ㅅ문으로 드러와서 아래층을 모다 뒤려 본후 이층으로 올라가서 자고잇는 주인수회행일에게 돈을 내라고 위협함으로 그는 돈이아래층 금고에 잇스니 아래층에 가서 끄내주마고 한쪽 괴한은 아래층으로 내려가는것을 수회는뒤로 범인의 억개를 붓잡고 서루 격투하는소리에 아래층에서 자고잇든 수회행일의 아우 희일(喜一)(二〇)이가 문밧그로 나가며 강도강도하고 질르는 큰소리에 그 이웃사람이 십여명이 달려와서 이십여간 가량주격하야 범인을 손쉽게 체포하엿는데 그는전북 남원군남원면 동충리(南原郡南原面東忠里)강절도 전과이범 최병권(崔炳權)(三二)으로 지난 팔월이십륙일에 동경소압(巢鴨)형무소에서 징역십삼년을 살고나온강도상습범인것이 판명되엿다 범인은본정경찰서에서 방금준렬한 취조를밧는 중이며 전긔수회행일은 손가락에 약이주일치료할 상처를바덧다한다 (사진은 범인)



最近京城人口 四四萬五千

十四府의人口百六十萬 全人口의一割四分

지난시월일일에 일제히 거행된소화십년도 국세조사는 지난 이십일 총독부에서 제이차각도 별인구개수가 발표되얏는데 전조선의 세대수 사백이십구만사천팔백삼개세대에 인구이천이백팔십구만오천백구십오인중 중요도시 십사개부(府)의 인구는총수일백륙십만륙천일백륙십칠인으로 전인구의 약일할사분에 당한다고 이십이일에 발표되얏다 경성부 총인구는 사십사만사천구십이인으로 소화구년도말 호구조사의 삼십팔만에 비하면 단번에 오만여인의 증가를보엿스며 그다음 각부인구개수는 다음과갓다

府名	總數	男	女
京城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釜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木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元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新義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開城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淸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光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鎭南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群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馬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總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押送中의犯人 小刀로自刎

주재소로부터 본서로 압송중에 단도로 목을찔러 자살을 꾀한절도혐의자가 잇다 지난이십일일오후한시경 경긔도 룡인군외사면백암리(龍仁郡外四面白岩里)삼백구십일번지 황국선(黃菊善)의 집에서 현금칠원도난사건이 발생하야 소관룡인경찰서외 사주재소에서 범인을찻든중 유력한혐의자로 그군 원삼면고당리(遠三面古堂里)발동긔선 운전수 권태진(權泰辰)(三二)을 데려다가 대개 취조를마친후 이날 오후네시반쯤하야 본서로 데려가려할때 그는자살을 꾀하야 주머니에 들엇든 단도를 끄내어 약사센치 깁피나되게 목을 찔른 것을 주재소원이 발견하고 크게랑패하야 곳공의를 청하야 응급치료를한후 수원도립 의원에 데려다가 방금치료중인데전치까지는약이주일가량걸이겟다고한다

今朝罷業開始 廿六隻停船

新海員組合에서指令續發 海員爭議漸次惡化

【大阪電話聯合】 점점맹렬해가는 천긔(川崎)긔선쟁의로 말미암아 대판(大阪)항에 정선중인 룡옥환(龍屋丸)영환(榮丸)등 세배의 신해원조합 소속승조원 륙십사명은 체신성의 강제하선(强制下船)명령을 어데까지 거절키되야 이십이일아참 전긔 세배의 조합원은 각각배안에 롱성(籠城)하야 외부와의 교통을 차단하고단넌 항쟁할결의를 굿게하야 사태는점점 악화되여왓다 이십일일밤에 내린 동정(同情)정선지령에따아 신해원조합세력미테잇는 전국각항에 정박중인 배는 이십이일아츰부터 속속정선하야 일속히 보지못하든 대규모의 해상(海上)제네스트의 막이 열리엿다 이십이일 정오까지 신일본해원조합 정보부에 달한 보고를 보면 정선한 배는 모다 이십륙척이다

朝鮮은無影響

신일본해원조합(新日本海員組合)의 천기기선회사 (川崎汽船)와 사외선(社外船)에 대한 총파업지령의 비화(飛火)가 조선안으로 뛰여들어와 경찰에서는 극히경계중인데 이십일 오전중의 려수하관간(麗水下關間)의 련락선은 교통에는 아즉하등의 지장이업고 또 관부련락선도 조금도 지장이업다 경무국에서는 각지의 항구소재지경찰에 명하여 자세한 조사와 경계를식히는중이나 지금까지 전하여온것가치 정선명령이 온것갓지도안하고 하여 선원들의 태도도극히평온하다고한다

鎭南浦精米所大火 正租四萬石燒失

男女職工五百餘名은失職 米穀損害만七十萬圓

【鎭南浦支局電話】 이십이일오전한시반경에 진남포역전 한두리(漢頭里)에잇는 태화정미소(泰和精米所) 긔계공장에서 불이나서 마츰불어오는 남풍에 불리여 동공장과 창고와 사무소와 주택등 건평칠백여평의 건물과 창고속에너은 정조(正租)사만석과 현미(玄米) 백미(白米)등 우선개산에 칠십만원어치를 소실하고 동여섯시반경에야 겨우진화하얏다 근방은 큰거물이만허서 대소동을하엿다 전긔태화정미소는 진남포실업계의중진 류태표(劉泰杓)씨가 경영하는 큰정미공장으로 동공장의 화재는 진남포의 실업계의 큰손실로 각방면에 크게영향주고잇다 그리고 동공장은 공장인까닭에 이화재는 곳 전긔오백여명직공의 당분간실업을하게될터이며 발화원인은 아즉도분명치못하며 긔계공장에서 발화된것만은전하고잇다 회재보험은 신호화재 (神戶火災)에 건물마는오만원에계약하얏다하며 상품에대하야는 아직그보험계약의 유무를알수업다

釜山에도大火、損害十四萬圓

【釜山支局電話】 이십이일 오전네시사십분 부산목지도영선정(釜山牧之島瀛仙町)소화『콜크』회사공사장에서 불이나서 공장세채와 사무소한채를 전소하고 아츰시에 진화되엿다 손해는 건물이백칠십평에 약 십사만원가량이라하며 원인은방금 직공수명을 데려다가 취조중이다

百餘名土兵을 襲擊擊退

【朝鮮軍司令部發表】 십일월십사일에 보병(步兵)칠십팔련대 국경(國境)○○대 외부구○대 (外部口○隊)는 초산(楚山)대안 소양분(小陽坌)에 토병두목구룡(九龍)이 만주국인 십수명의 인질(人質)을 잡아가고 폭행을한다는 정보를접하고 ○대장 길긔(吉崎)소위는 부하 삼십수명을 인솔하고 그들을 포위격멸하고자 밤어두움을타서 전진(前進)하야 새벽에 험난한 산악지대에 웅거한 토병약백명을 급히 엄습하야 다수한 손해를보이고 토병다섯명을 쏘아죽이고 만주인 십일명을 도로차자왓다

天氣豫報

曇小雨

昨日氣溫 最高 一三度四 最低 二度一 今朝 七度五

運動競技

京醫專蹴球部 廣高를一蹴

四對一스코어로

日本內地遠征中에잇는 京城醫學專門學校蹴球部一行은 十九日에 遠征第一戰으로 廣島高等學校와 對戰하엿는데 四對一의스코어로 快勝하엿다 그리고 二十日에는 廣島高工과 對戰할터이며 二十一日에는 廣城俱樂部나 臥虎俱樂部와 一戰을交할豫定이라한다

平壤籠球리그 第六、七日戰績

【平壤】 崇實專門體育部主催 本社平壤支局後援의 第五回 全平壤籠球聯盟戰은 二十一日로 第八日를 經過하엿는바 임이그人氣絶頂에 達하여잇다 第八日은 午後六時四十五分부터 崇實A對崇商B戰으로 開始한바崇實A軍 처음부터 斷然壓倒하고나가드니 結局 五十一對六이란 大差로 大勝하고 西洋人對籠友戰은 처음에는 一進一退하여 白熱戰을 演出트니 五分뒤부터 西洋人軍 優勢로 壓倒하고 마감에 籠友軍 最後까지 奮鬪햇스나 奏効업시 結局 二十八對十八로 敗하엿다 다음 崇實B對 쥬니올戰은 쥬니올軍 練習不足으로 失手 續出하야 苦戰함에 崇實B軍 처음부터 猛襲트니 結局 二十八對十四로 崇實B軍 快勝하엿다 西原—農軍 崇商A—崇商GC戰은 相對될 棄權으로 西原崇商A軍 各不戰一勝하엿는데當日과第六、七兩日戰績은다음과갓다

崇實A 51 (24 27 / 27 24) 6 崇商B

審判 金寶錫、車相彬兩氏 께

임三十分間

西洋人28 (14 14 / 9 9) 18 籠友

審判 金善明 金德振兩氏 께

임三十分間

崇實B 28 (13 15 / 8 6) 14 쥬니올

審判 金善明、陳東勳兩氏 께

임 三十分間

第六日(十八日)

崇實B 29 (13 16 / 10 4) 10 西洋人

籠友 35 (23 12 / 11 18) 29 崇商GC

OB 32 (22 10 / 17 6) 23 崇商B

崇商A 崇實A兩軍相對할 棄權으로 不戰勝

第七日(十九日)

崇商GC 43 (22 21 / 24 14) 38 쥬니올

西洋人 28 (11 17 / 14 9) 23 中職員

崇商A 47 (24 23 / 10 3) 13 崇實B

崇商B 33 (19 14 / 12 3) 15 西原

崇實A對農軍戰은 農軍棄權으로 崇實A不戰勝

崇商에게記念品贈呈

【平壤】 全日本 中等學校 籠球界를 席捲하고 凱旋한 崇仁商業籠球軍을 平壤有志 百餘名이 會集하여 戰勝祝賀會를 開催햇다함은 旣報와 갓거니와 前記 祝賀會費中에서 殘金이 三十餘圓이나 되여슴으로 意味잇는 會合과 崇商의 祝勝을 記念키爲하여 記念銀盃와 記念球를寄贈하기로되여 製作中이든바 完成되여 二十一日 主催側代表하여 金炳淵 宋錫燦氏가 同校朝會時間을 利用하여 全校生의拍手歡聲裡에 傳達하엿다

運動界人事

◀成興永生女子高普 籠球部選手一行七名은 梨花女專主催籠球大會에出戰次 宋利玉氏引率下에二十二日朝入京 梨花女專寄宿舍에投宿中

◀富川保聖女學校 籠球部選手一行七名은梁仲勳氏引率下에同上

◀新義州商業 籠球部選手一行二十名은 監督李一成氏引率下에二十一日午後九時上京 旅館投宿中

링질 リネオチリン
可恐할 靑春毒의流行을 防止하는 林疾의 治療法 ... 兵庫縣細川 電波河 三番 株式會社 木村製藥 株式會社 山本製藥所 京城本町四ノ二六 全國藥店百貨店에잇슴

サンエ號自轉車
一步前進된 完全防水式
經濟價値三倍
東京 田町 サンエ號自轉車工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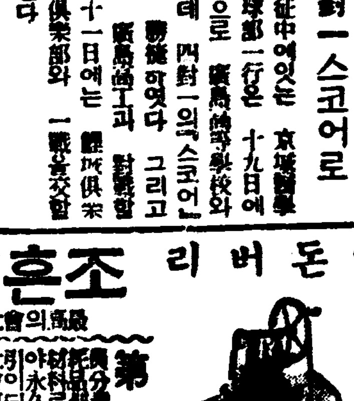
恩給 長期據低利貸付 他에比較最有利 信用을重히하는 特色을 照會回答 京城府授恩洞一六〇 鄭商會

解雇 洪濟院에本社와關係가無함을 勿論 城西染料合名會社 告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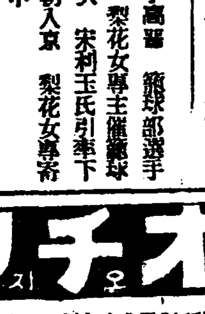
朝報案內

好職業 不景氣로失敗는업다 利益만코本業副業으로男女老少共히 自宅에서 할수잇는 職業 年中無休 說明書及見本無代進呈 急送 大阪天王寺區堂ケ芝町 福榮本舖

天銀鑛業社 京城府公平洞九番地 長電話光化門1482 一般鑛務 分析責任은 分析工業科物數專延 研究室


돈버리 조흔家庭工業 最高의社會的意義잇는大事業紹介
第一 第二 林式會社
偉大한二大工業依賴함

眩氣에 はれやか! (하레야가)


Columbia 蔡奎燁 不朽의 傑作盤 순풍에돗달고 아득한千里길 녹쓰른비녀 외로운길손 콜럼비아레코-드

메리야스 雜貨 卸商 三永商会 店名記入商報請求次第無代進呈 京城府三角町百五番地 電話光化門(3)一四六三 振替京城一五八〇三 仕入部 大阪市此花區上福島南二丁目四三 電話福島一五八八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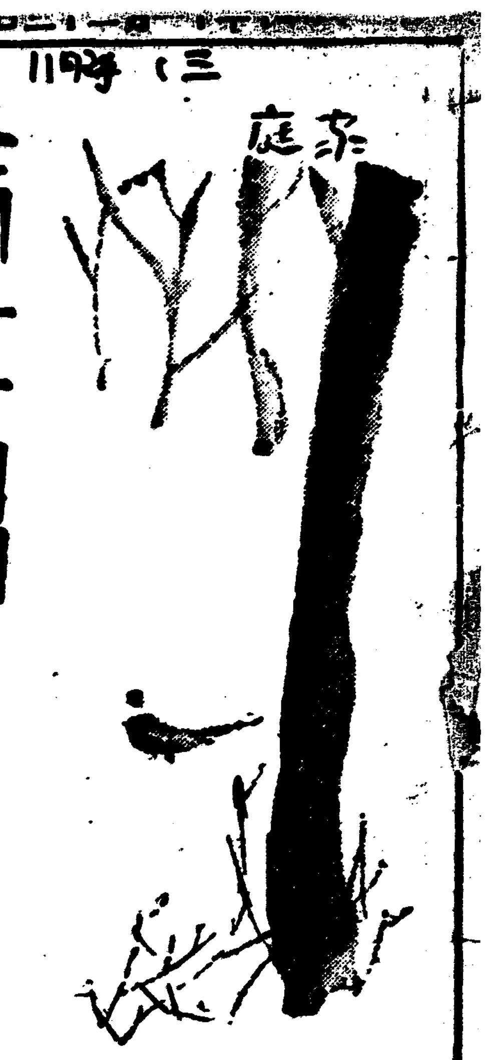
電氣醫療師 學理、實地全科責任養成 短期卒業、僅小한資金으로 도곡成功한다 醫師同樣의尊敬과收入을 一生安樂할高職 朝鮮에서本院以外에는資格잇는養成所는업다 朝鮮高等電醫講習院 京城黃金町三ノ三四四

腫氣 靑山膏 에옴 히벡고

確實한 副業 百圓前後の資本で始められる 收入確實 生活安定의職業에 副業 一報次第가다로구進呈 大阪東區玉造木野町電停南 丸見屋本店 振替大阪二九七〇九番

各種信託 低利貸出 迅速有利 朝鮮信託株式會社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九番地 社長 谷多喜磨 支店所在地 (群山、釜山、木浦 平壤、大邱) 營業案內贈呈

金 銀 福 白 金 東京市下谷區御徒町 株式會社 石福商店 出張所 平壤府 町



분세수할쩍에 푸대접밧는"귀"

면상만곱게말고귀도돌보시요

"미""운""귀""는""엇""더""케""할""까"

저의귀는바다시가의조갑지 물결치는소리가그리워요 "코―토"의 詩

여러분이, 아모리 반나절 분세수에 가진 단장을 다 차리시엇다고 하더라도 꼭 한군데만은 이저버리어서 아모러케나 해 가지고 나서십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좁고도 넓은 것이 얼골이 아니라면 다심하고도 빈틈잇는 것이 부인네의 마음일듯합니다. 여하튼 그 이저버리엇다는 그 곳이 대체 어느곳입니까? 이목구비 빤한 얼골에서 손낌이안 닷는 곳이 과연 어데라고 한마듸 이저버릴리 잇습니까? 그래도 꼭 한군데가 잇답니다. 이목구비중에 그곳 귀랍니다. 입술, 뺨, 눈썹, 눈, 코등 짱그리 단장을 하시면서도 귀만은 물로 슬쩍씻고 분이 올려 그대로 두십니다. 귀로서도 섭섭하러니와 귀를 빼노흔 그 단장도 잘된 단장이 못 됩니다.

본래부터 두귀는 얼골 변두리에가서 부터잇스니까 대단히 떠기지 안는버릇이 잇습니다. 그래서 그저 얼골 한복판만위하지 도모지 귀를 위할줄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실상 귀가 얼마나 중요한것인지 아십니까? 얼골이 환하다는등 야쁘장스럽다는등 그저거럼으로 볼때는 귀가 그다지 문제되지 안켓지요만은

원얼골의짬짬이

로부터 참말의 미(美)를 찾을때는 귀가 여간만 문제되지안습니다. 그나 그뿐입니까? 현대적미인은 바로 보아서보담도 모로 보아서 치는 것이라 귀와 코스꿋이 실로 큰 관건을 가지고 잇게 됩니다. 뒤人맵시나 압맵시도 물론 조하서 조치 나쌔서 조흘 것은 업습니다 단지 엽맵시는 그만 못하게 아니 그 엇지 될 말이나고 항의할문입니다.

×

귀도가만히보면

각인 각양으로 혀형색색이지요 두툼한귀, 넙데데한귀, 빡족한귀, 길다란 귀, 어데지 모르게 사나워 보이는 귀, 아모래도 조금 섬껍이 부터 보이는 귀, 짝박귀, 칼귀등등 그야 이로 다 헤아려 말할수 업스니까요. 그런데 귀를맵시내게 하는데는무엇보담도 머리드는법을 주의하여야합니다. 좀 이쁘거나 끼끔하야 잘생긴 귀는 한번 색내노하서

자랑도할쭉하되

그 반대의 못난귀는 차라리 머리로다가 슬쩍 가리어 버리는이만 갓지 못 합니다. 머리를 가리는 데도 귀를 보아 가며 여러 가지의 방법을 쓸수 잇습니다. 즉미미가구시로 를어서 외귀를 다 가리든지 또혹 웨브를 해서 삼분의이 내지일쪽만 가리든지 등입니다.

×

귀가 좀 두툼하고 넙버서 점잖귀는 하되 이쁘거나 끼끗하지 못한

귀는들머리보담

도 쪽을 찌는 편이 더 조습니다. 그와동시 좀 특징이 잇서서 보이는 귀는 웨브로써 반짝가리어 현대적색채과 대조시키어 주는 것이 조흡니다. 그것은 그러커니와 귀를 내노흘때는 거긔도 분세수이외 좀더 특별한 단장을 해야 하지 안습니까? 그야 특별한 단장이랄것도 업시 입술이나 뺨에 베니를 바르고난뒤 손까락에남은 베니를 가지고

귀바퀴에 슬쩍

문질러 엷게 칠해 둡니다. 그러면 풀그소롬한 귀바퀴로부터 맵시가 아긔자긔하게 울어납니다 지날결에 손끗한번 놀리어 그만한 손득이 업스리라고 미터 의심치 안습니다

가먹따수끗

어른애·어룬 다 조와하십니다

『커피』차대신 이차

요사이는 따뜻한 커피차가 한엇되는시절입니다 그런데 보통 커피차로서는 써서 조화하는사람도 잇스니까 어려한때는 정말커피차는 아니라엇잇고 자양이서 병인이나 어린애기나할것이시 누구나 다조화하는 커피차를 맨들어야 합니다.

◇단거로맨든차

를피 흙이 묻지안토록 갓단겨를 벗이 노라케 복가서 끌는물한홉에 한되쯤 섞거 한번식 끄린뒤 엽알침에 바처서 사랑열수갈불리가지고 떠근하게끄려먹으면 맛도조코 자양도잇슴니다

◇거정풍으로 맨들어입니다 겁전등을 깨끗하게씻어 물이업도록 잘말어가지고 복되 깨므러봐 맛이쓰기까지 복거놓으다움 빼아서 가루를 만드려두고 필요할때마다 훌한홉에 한수갈비련로 너허끄러서 사랑을 타서 먹으면 아주얼미입니다

털샤쓰 주러들지안케 잘빠는법

털옷은 근본그성질이 빨면 주러드는것입니다 세탁할때 여간주의를하지안흐면 사쓰가튼것이 차차 주러드러서 어른옷이 아히들옷만하게되고 또다시 아히들옷이 작난감의 인형옷만하게 됩니다.

(一) 세탁하는물의 온도를처음부터 끗까지 그저또듯하게하야 결코차거나 뜨겁거나 변동이업게할일

(二) 때가만히 무든것이라고 비누를만히 너치말고 물을만히잡아 두번이나 세번홍다시빨것

(三) 비누는 『알카리』성이강하지안코 품질이조혼것을선택하야 물에풀러너코 봉사나 암모니아를 약간타서빨것

(四) 보통빨래처럼 빨든지 짜지말고 그대로 넘거나 그려치안흐면 마른수건으로 꼭꼭눌너 물긔를 엄시한후너러말릴것

털옷을 졸지안케 세탁하는법은 대체로 이러합니다 다음은 세탁을잘못하야 주러진 옷을처음과가티 늘게하려면 주러진털옷을 뜨거운물에너헛다 건저서 마른헝겁에보가튼것으로싸서 놀너짜버리다음 따뜻한방안에서 뜨거운긔운이 업서지기전에 손자게 잡아다려가면서 늘녀서말리십시요 마른다음은 강한증긔를 쏘이고 또 그다음 양북대리는방식으로 대리십시요

이방법은 륜시주려드려서 입지못할정도의것도 훌륭하게늘드릴수잇는것입니다

가죽장갑 세탁하는법

가죽장갑이 더러웟슬때 세탁법을 잘모르면 그대로 버리는수가 만습니다. 대체로 심하더럽기전에는 랄지면에『벤징』을적시어서 닥그면 잘빠집니다마는 심히더러웟슬때는 비눗물에다 휘발유를 조금떠러트려빨고 다시 깨끗이 히여서말리되 먼저 손에한번 껴서 모양을 완전히만 만드러가지고 거러치자나 우유를 바르면 조습니다.

가죽장갑을 매일쓰지안니할경우에는 그늘에거러서 충분히 말린후 습긔가 업는 장속에 너허두십시요 가죽이 습긔와는아주상극이니까요.

家庭醫學

트림이작구나오

問 이십구세된 남자인데 삼년전부터 입상혈트림이 나옵니다 엇던때는 신트림도 납니다 배는 조곰도 꿉꿉지안코 종종설사는하나 식욕은 조습니다 치료방법을 가라처 주시기 바랍니다 (平北一讀者)

答 위무력증(胃無力症)인것갓습니다 복부마찰을하시고 적당한 운동을하며 수분을 적게자시고 자극성음식을 금하시며좌기처방을 한달가량 연복하여보십시요

一、重曹 ……

레소르진 〇、五

사로―르 一、〇

右四分三日三回食直後服用

(大學病院伊藤內科朴秉來)

腹痛 배아픈증

우습게여기다가 큰일나는수가잇습니다

외人과의의사가본『복통』이야기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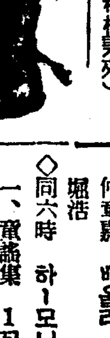
文仁柱

흔히보면 배앓는것을 예사로녀기는모양이나 외과의사의 눈으로볼때에는 대단히중한병으로인하야 복통을 이르키는수가만으며 수술(手術)을 필요로하는때가 만습니다.

복통이라도 만성으로 경과하는병은 내과의(內科醫)의 치료만으로 만족한결과를 볼수잇는일이만으나 급성으로 갑자기복통을 이르키여, 점점고통이 만아갈때에는 일분 일초라도 속히 개복술(開腹術)을하지안으면 대단히 불행한일을당하는수가만습니다 불행히죽게되거나 죽지안는다라도 수술후에 완치까지의 시일이 오래게됩니다 례를들어 말하면 맹장염 가튼것은 발병후 사십팔시간안에 수술을 밧으면 대개 이주일안으로 완치할수가 잇스나 그시간을 넘긴후에 수술을 하게되면 일개월내지 이삼개월 치료를 밧지안으면 완치되지 안는수가 만흠으로 그환자로서는 여러가지점으로 만흔고통을 밧지안으면아니되게 되는것입니다. 그러나수술을 필요로하는 복통이라도발병초기에 의사의 수술을 밧으려 오는환자가 매우 적으며대개가 시일이 느저 협수할수업슬때 오는수가 만습니다.

복통이 생기면 아모라도 제일 먼저 내과 의사를 찾습니다 그때에 그내과의사가 실력잇고 량심(良心)잇는 의사라면 곳 수술을 필요로하는가 내과적치료를 필요로하는가를 판단하야 수술을 필요로할때는 즉시외과의의사에게로, 환자를 보내기때문에 초기수술을하야 속히 완치할수잇게됩니다. 그러나 그내과의사가 수술을 필요로하는지 안하는지로 판단치 못하고 어물쭈물하며 혹은 수술을 필요로하는줄을 알면서도 하로라도 더지그병원에 두어보고 십허하며 며칠후 환자가 위험한상태에빠조슬때에 그제야 자기의책임을다른곳으로옴기고저 외과의사에게보낸다면 그환자를위하야 매우슬퍼할일입니다. 우리외과의사는 이런불행한일을당하는환자를 종종보게되니 환자의 문지(無知)보다도 그를 주치(主治)하얏든 의사를 원망하고십습니다. 그럼으로 복통이잇슬때에는 내과의사에게만 보이지말고 외과의사에게도 보이시기를바람니다. 그러나 복통뿐아니라 그박게외과적질병으로 의사가 수술에 제일 적당한 시긔에 수술을 하라하야도 환자 자신이 수술을 밧기를 매우 실혀하는때가 만습니다. 의사가 지금곳 수술을 하여야되며 시일이 느즈면 불행한 결과를 마술것이라고하야도 환자의 말이 그냥죽으면 죽엇지 수술은 밧지 안켓다고 하는이가 만흐니 어떤때마다 수술밧기를 실혀하는원인이 무어인가를 생각하야봅니다. 칼로써 살을 베게 되므로 지금의 아픔의 고통보다도 수술시와 그후에는 더마흔 고통이 잇스리라고 생각할것이며 또 그냥 두는것보다 수술로 인하야 불행이 잇지나안흘가를생각함으로수술밧기를 실혀할것입니다. 그러면 수술할때에 환자에게고통이만흔가하면 녯날의학이 발달되지못한시대에는 수술할때에 환자에게 고통이잇섯슬것이나현대의 진보된 외과긔술로써 수술을하면 환자는 조곰도 고통을 늣기지안습니다 녯날에는개복술(開腹術)이면 대개전신마취(全身痲醉)로써 수술을 하얏스나요사이는 전신마취는 특별한경우에한하고 대개는 국소마취(局所痲醉)로써 만족하게 환자에게 고통을 주지안코 의사와환자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수술할수가 잇습니다. 그러고 완전한 실력을 가진외과의사라면 수술로 인하야 조금도위험이 업슬것입니다. 의사가 수술밧기를 권고할때에 수술을 무서워하거나 실혀하는환자는 …… 해야할것입니다.

二十二日(金)



◇午後六時 童話 崔泳柱

◇同六時二五分 趣味講話 發明로만스 崔在瑞

◇同七時三〇分 記念講演 哲學者스피노자 朴鍾鴻

◇同八時 連續라듸오드라마(二) 톨스토이原作『復活』大尾

【配役】 네흐류―도후……李青左 카츄샤…尹仁姬 看守…白友影 女罪囚…林文姬 女罪囚…金惠仙 女罪囚…朴英姬 護送士官…崔東俊 男罪囚…韓星 男罪囚…白友影 男罪囚…崔東俊 시몬손…金德三 新派會 指揮 白友二 効果 効果班

◇同九時 (東) 吹奏樂 一、歌劇『아우리스의이피게니아』序曲 글룩作曲 二、舞踊組曲『四季』 글라즈―노프作曲 (가)봄노래 (나)矢車花와楊貴妃의圓舞曲 (다)아다지오 (라)喚宴曲 三、佛蘭西軍隊行進曲 상상스作曲 指揮樂長 內藤清五 海軍軍樂隊

二十三日(土)

◇午後〇時五〇分 將棋打鈴外 一、將棋打鈴 二、바위打鈴 三、小春香歌 四、興打鈴 五、달거리 崔貞植

◇同一時二〇分 (名)室內樂 一、絃樂四重奏曲 D長調…모―차르트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 第二樂章 안단데 第三樂章 메누엣트 第四樂章 알레그로 二、몰로렌도…루빈슈타인作曲 포―스編曲 名古屋스트링콰르텟트 第一빠이올린 中村日出男 第二빠이올린 小仲章嘉 삐올라 高松茂 첼로 堀浩

◇同六時 하―모니카合奏 一、童謠集 1꼬부랑할머니 2초생달 3개골이 4음바생각 5모래노름 二、圓舞曲『다뉴―브의곱결』 이바노비치作曲 아르메 하―모니카밴드

◇同六時二五分 時事解說 咸尙勳

◇同七時三〇分 音律 一、平調會像 二、吹打 三、輿民樂 玄琴 金雨燈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八時 流行歌 一、情恨의버들 二、…… 三、꼿피는江南 四、月光恨

◇同八時三〇分 古談 青邱

◇同九時 唱劇 …… 春香歌中 ……

二十四日(日)

◇午後〇時五〇分 새타령外一 …… 二、새타령 三、六字백이 四、興打鈴 五、개고리타령 鄭貞色 金鍾豪 大笒 朴鍾基

◇同一時二〇分 레코―드音樂

◇同六時 唱歌 一、사공의아들 二、작자는미력남 三、귀드람 四、꼬부랑무덤 五、이 한달 六、가을 七、韓仁校歌 韓仁普校三四年生徒

◇同六時二〇分 兒童日曜新聞

◇同六時三〇分 心田開發講話 葛弘基

◇同七時三〇分 散談 烏肉消耗 玄哲

◇同八時 피아노獨奏 一、巡禮者의合唱 빠―그너作曲 二、별로레듸G플랫트長調…파데레우스키 三、前奏曲 D플랫트長調 四、夜想曲 E플랫트長調 五、圓舞曲 A플랫트長調 쇼팡作曲 朴慶浩

◇同八時三〇分 唱劇 春香歌中 新官到任하는데 吳太石 金澈俊 丁南希 丁元燮 趙素玉 曹弄玉

曆

十一月廿三日(土) 舊十月廿八日 癸亥(大) 廿八日

癸卯·金·女·定

●冠帶時刻은卯時坐向은東南嫁娶移徙·裁衣·動土·上樑 卯時開始 納財啓攢에宜함

●立冬八日(舊月十二日)

●小雪二十三日(舊月廿八日)

백공한

金湘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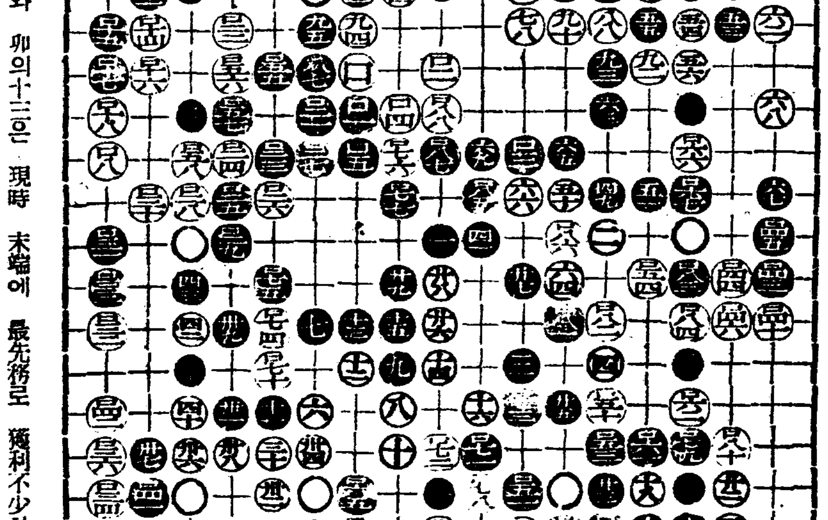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0==

白 秦極文 當局
黑先 金南杓 秀才

●【一六九】乙의一
○【一七〇】卯의十三
●【一七一】壬의十五
○【一七二】癸의十五
●【一七三】辛의十四
○【一七四】卯의十三
●【一七五】卯의十一
○【一七六】子의八
●【一七七】子의九
○【一七八】壬의十六
●【一七九】丁의十五
○【一八〇】丙의十五
●【一八一】庚의十三
○【一八二】己의十三
●【一八三】丁의十一
○【一八四】丁의十三
●【一八五】壬의九
○【一八六】庚의十
●【一八七】癸의八
○【一八八】癸의七



◆對局者談

白 甲의二와 卯의十三은 現時 未端에 最先務로 獲利不少하니 此亦先手所得이요 黑 庚의十二 丁의十一 丁의十五는 此亦先手로 得利亦然하니 棊家之先着은 非但効力發生이라 最上策으로 確證하노라

KB―60

呼吸器結核症

治療와 榮養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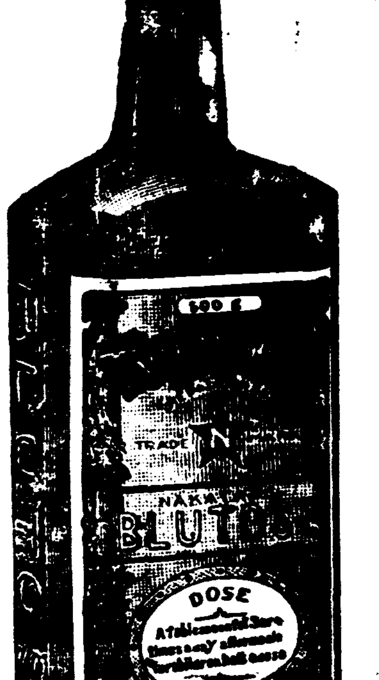
古來로多數한學者가研究에研究를거듭하고잇는結核治療는今日도亦是治療의根本原則으로는自然治療이란것以外에는아모런것도發見치못하엿다따라서肺結核의治療劑는食慾을亢進케하야體力의增進을期케하는것이라稱하드라도以上의點에相反하는時는結核治療劑로서는全혀無價値에가까운것이다大槪結核患者의食慾不振은結核毒素의作用에依하야全身의神經系統特히植物神經系의機能障害를이르켜食慾不振、全身倦怠等의症狀을呈하는것이다따라서此의治療에際하여는單只胃腸疾患의食慾不振과同一視하야消化劑를投與하여도其効果를期待치못하는것은當然한일이다이러한때에부루도―제와갓튼消化液의分泌을旺盛케하야食慾을亢進케하며더욱이筋肉組織의資源榮素인消化蛋白을豊富히含有하야體力을增進케하는强壯劑를使用하는것은適切한處置라할수잇고旣히各帝國大學病院指定常備藥인것을비롯하야全國各地府縣公私立病院及醫學大家의十數年間에亘한臨床實驗이如實히本劑의効果를立證하고잇다

肺結核、慢性氣管支炎에 구아야콜(半ケ月分二圓六十錢 一ケ月分四圓三十錢)

食慾缺乏、全身衰弱에 …… (半ケ月分 一ケ月分 三圓二十錢)

胃腸病、皮膚病及 …… (半ケ月分 一ケ月分 …… 三圓七十錢)

「活動의源泉」……



구아야콜 부루도―제

藤澤友吉商店

나의 본 大톨스토이의 人物과作品 (一)

碧初

로시아作家로 世界에알려진 伯爵「톨스토이」가하나가아니다 「레브·니콜라에빗취·톨스토이」보담 前에 알렉세이·콘스탄틴노빗취·톨스토이」가잇섯고 後에 알렉세이·니콜라에비취·톨스토이가잇다 「레브」를 前後의 「알렉세이」와 混同할사람은 업겟지만 區別하는것이 더조흘것가터서 世界的大藝術家 大宗教家라는 大字를 레브에붓치어 大톨스토이라고한다

大톨스토이가 八十餘歲老人으로 집을 버리고 도망하야 어느 修道院에잇는 누의「마리아」를 마즈랴보라고 가는길에 갑작이 病이나서 「아스타포보」란 조그만 村停車場에눕게되엇다 이消息이 세상에 알려지자 救護하려오는사람에 通信資料어드러오는사람에 로시아사람과 달른나라사람이 물끌틋 드러밀려서「아스타포보」停車場의 복잡한것이 空前絶後하다고하얏다 (電話電信線을새로 架設하얏다는 한일만 미루어서도 그복잡한光景을 대개 想像할수잇다) 大톨스토이는 病床에누어서 「이세상에는 수백만이 벗지기를 기다리는사람이 許多한데 왜 이러케만이 내여메를 와서잇느냐?」는말을 最後로남기고 마침내 이세상을떠낫다 各國新聞에서 號外로 死亡을 傳하얏다 東京各新聞紙面에 社說이란 大小活字가 連日 痲痺되드시 생각하면 어제일만가튼데 그동안 발서 二十五年歲月이흘러갓고나

二十五年동안에 이세상은 만히變하얏다 온세상이 다變하는동에 로시아는 特別히 社會와國家가 根本으로부터 變하야서 모든事物이 새 헤롬우에서 새 評價를 밧게된 까닭에 價値가 顚倒된것이 만타 例를들어 말하면 前에 特待밧든 宗敎家들이 지금 蔑視를밧게되엇고 前에 로시아의자랑이든 世界的作家들이 反動者的出身을 밧고 로시아에서 쫏겨나서 지금生死存沒을 몰으게된사람이 여럿이다 그런데 大톨스토이는 새評價에도 偉大한것을 일치안하서 「야스나야·폴리아나」의 住宅이 로시아의國寶로 編入되어잇고 未亡人 소뛰야가 쏘비에트政府에서 年金을 바다고한다 레브·톨스토이가 이러케 偉大하든가 그의 偉大한것을 다시금 생각할때도 업지아니하다

大톨스토이 生時에 그著作과 各國翻譯과 그에關한出版物이 티티히 적은 圖書館이될만하더하얏고 그의 原稿料가 한枚에 四十六圓 一千二三百루불이엇고 아메리카合衆國어느新聞에서는 一語五錢으로 料金을 計算하기까지하얏다 이러한特別料金은 그나라를代表할만한사람이 優待의代作으로 어느쩍 偉文하나를짓고 글자한자에 비단한필식 請求하야바든 例外일을 제처노코는 世界에 다시업는 일이엇을것이다 지금 쏘비에트 로시아文壇의 指導者인「막심 꼴키」가 帝政時代官廳에게 注擇을 當하얏슬때 이달리에서 外交問題를 삼을 지경이니까 일이 더크지안헛는데 그때 말들이 「꼴키」이니까 일이 이러케 되엇지 만일 레브·톨스토이를 잡아갓더면 이달리 外交는 고사하고 로시아 國內에 난리라고 하얏섯다 레브·톨스토이의 偉大한것을 말하자면 가지가지 만켓지만 생각나는대로 이만하고 그치겟다

學藝

個性擁護論

그것의現代的意義에對하야

④ 玄永燮

한개의會合이란 自發的統一이지 決코 强制的勢力의 命令에依한것은 아니다 그럼으로 그것은 友情이나 戀愛와도가튼性이잇는 사람들의 會合가티 아름다운것이다

友情이나 戀愛는 服從이아닌것이다

服從 이라면 主人과下人 雇客과 賣笑婦의關係가되다 우리들은 友情과 戀愛에 表現된 形式과 內容을 擴大하는것이 人生의最大目的일것이다 朝鮮은 友愛와 男女의 愛情에飢餓의 땅이다 歐洲道德史의 著者「레키」는 愛蘭이 英國가티 自由戀愛를 하얏드면 愛蘭도 좀더幸福한 나라가 되엿스리라고 하얏다 個性의 發達이 幼稚한우리들의 戀愛生活에 成功할理도업다 經濟的貧困地帶에 戀愛는 表現形式으로서의 戀愛가 成立될것이다 眞實한 戀愛는 個性과 個性의 共鳴이다 名譽、地位、金錢을 爲한結合이 아니라 人格과 人格과의 結合이다 勿論 經濟的壓迫이 잇다면 眞實한 生長이 困難하나 貧民間에 戀愛의 成立이 업다고는 말할수업다 내가 戀愛의 必要를 말하는것은 個性의 生長을 希望하는까닭이다

나는 主觀的으로만 觀念的으로만 個性을말햇다 그러나 個性은 政治的、經濟的 土臺가 업시는生長할수업다 우리들에게個性이 업는것은歷史的、政治的 **原因** 에 基因한다 儒敎도勿論적지안흔 障害가 되엿다 그러나 歷史、社會、經濟에 對하야는 나는 沈默하랴한다 다만 나는 個性을 主觀的으로만 본다는 危險性을 充分히 自覺하면서 이붓을는것이다

三、個性의生物學的基礎

人間은生物中에 가장社會的動物이지만 또 가장 個性化된動物이다 牧羊者는 羊群을區別할수잇다한다 犬類에도 個性이잇다 J、S헉스레ー의 個性論은 大體로首肯할만한것이다 그러나 完全한 個性은 勿論업다 個性에는 程度가잇다고 할수밧게는업다 個體란 部分이 相互依存하는 統一的全體이며 持續、期間、單獨性의 歷史를 가진다 部分의 相互依存이 크면 클사록 個體의 全體로서의 獨立性은크다 이런것에 個性은賦與한다

進化에는 集合과 個性化의 두作用이잇다 이것에依하야 個體를 三段에 區分할수잇다 第一段의 個體는 群體를 이루기爲하야 集合한다 分業이 發生할때 이것을 第二段의 個體라고 말할수잇다 多細胞動物은 第二段의 個體다 그單位들이 다시 集合할때 그것을第三段의 個體라 말할수잇다 第三段個體中에 群居動物에는 分業이 업고 人間과 社會的 昆虫에는 分業이 잇다

人間에잇서서는 第二段의 個體(男女)가 結合하야 또全體와 結合한다 人間의 精神生活은 相互依存의 **部分** 이 持續的統一體로 組織되다 內體的個性우에 精神的個性ー人格ー이 노여잇다 人格의 個性化의 諸程度가 可能하다

人格이란 高度로 組織된 社會에서 强化하여야된다는 法은 업지만 高度로 組織된 社會에서만 個性化의 最高水準이 可能하다 高等의 個性化는 勿論 生命의 進步的性質을 가진다 그런까닭에 人間의 共同體의 個性化한 그構成員의 個性化보담 한선 下位에잇는것이다 共同體는 個人을爲하야 存在한다 그러나 共同體와 個人은 相互依存하는까닭에 純粹한 生物的見地로 말한다면 共同體에對한 個人의義務가잇다

無機物의 世界에잇서서 決定的인 不變하는 物體가업는것가티 絶對的個性이란것은업다 물은周圍부터 物質과 勢力을주고 밧는다 今日의 물은昨日의물이 아니다 世界의 自己以外의物件과相對的으로 相違한限이다 그럼으로 個體란 相對的으로 分離하고 統一되고 또는獨立한것이지 絶對的으로 그러한것은아니다 動物中에서 個性化의 最高度는 第二段單位에 發見되지만 最大의生物學的成功은 個性化가 低度인(社會的昆虫과人間) 第三段單位를 形成하기爲한 第二段個性의 結合에依하야 成就되다 人間의、精神力은 社會의 **意識** 에流入한다 自己自身의 個性을 身보담 더크고、더놉흔 무엇에 喪失한다고도 말할수잇다

古平壤을차저

考古學的趣味의散策記

⑦ 洪鍾仁

古墳과殉葬遺品

樂浪研究의 興味는 全혀 古墳發掘과 墳內에殉葬되여잇는 遺品의調査吟味에잇다 千七、八百年乃至二千年前의것으로 外氣를 못보고 地下에깁히 埋葬되여잇든 堅牢한墳槨을 發掘함에 果然그 內部에는 무엇이 內藏되여잇슬까하는것은 單純한 興味보다도 어크다란 興奮을禁치못하게하는것이잇다 지금까지 겨우 三十基未滿의發掘로 아직은 部分的研究에 屬한다할것이나 그結果만흠가지고도 世界的으로 驚異를 늘히고잇는터인즉 千三百餘基에對한詳細한 發掘이 遂行되다면그 收穫은 實로 놀라운것이 잇슬것이고 딸아서 現在定說이라고하는 研究結果에 對하여서도 어떠한 異說의根據를 어듸런지도 몰을것이다 이런點으로보면 樂浪古墳의研究는 아직도 前途洋洋하다할것이다 이제 古墳과 그遺品에關하여 無理한바 만흠을 참고 極히 簡單하게 말하런다

◇

古墳은 大別하여 木槨墳과 塼槨墳의 二種이잇다 木槨墳은 木槨(槨은 外部를싸고 內部에는 木棺을 둘것도잇스나 가 달으다 八九尺、丈餘의 立方을가젓다)을 만들고 그대로 四壁과 天井에까지 材를 使用하고 그우에 封土를 한것이고 塼槨은 長一尺二寸、廣五寸、厚二寸가량의塼으로 두장式 겹싸어올린것으로 는 內槨狀으로하고 天井은 穹窿狀으로 巧妙히 築造하엿는데 大槪는 玄室(室內는 十數尺平方高는 十四五尺)이잇고 前室에는 또小側室이잇고 羨道와 各室의 通口는 아ー치(半圓拱)를쓸어 當時築造術이 얼마나 進步하엿든가를 보이고잇다 塼槨이 木槨보다는 좀더進步된 技術이 必要되는 것은 짐작할수잇스나 果然 木槨보다 後代의것인가함에는 아직疑問에屬한다 그리고 殉葬品에依하여 (例를들면 陶器는 塼槨에서 더만히 나와잇다든가 하는等) 塼槨이 木槨보다 後代의것이 아닌가하고도 推斷하여보앗스나 다시 木槨의 發掘에依하여 그러타고도 斷定을못하고잇다 여기에 木槨과 塼槨에關한年代關係 또는 被葬者의身分關係等 研究는 거이 白紙狀態에잇다고할것이다 그러고 墳形은 方臺形으로 陝西省 咸陽에잇는 周의文王、成王、康王의 陵이라고 하는者나 西安府 漢의 惠帝、景帝、宣帝의 陵이라고하는者가 모다 同型으로 이는 漢民族固有의 形式이라고 한다 (朝野博士朝鮮美術史參照)

◇

그러나 그보다도 墳內에殉葬된 遺品이 樂浪의 文化를 말하는 가장 重要한 資料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發掘된 遺品을 大略 紹介하면

一、銅器……博山爐、鼎、壺、樽、甁、盒、洗、盤、鐎斗等
二、土器……壺、甑、案、杯、博山爐、燒案、印、瓦當(家、狗、鷄、鳥)等
三、漆器……案、盤、杯、匣等
四、鐵製武器……刀、劍、戈、斧、弩機、鏃、等
五、馬具……轡、銜鑣、革帶附屬具
六、布帛……麻布、絹、綾羅類
七、金屬服飾品……指環、帶鉤、帶其他
八、玉石器……璧、眼玉、玉家、玉印等 裝飾珠玉類
九、玩弄……梳、簪
十、錢……半兩、五銖、貨泉、大錢五十、小錢直一

大略 以上과가튼것이어서、이것은 이잇스나 그것은 多數하기로아 우리는 이것으로 上代의 進步된工藝에 놀라지 안흘수업다 精巧한 彫刻과 鍍金、銅鏡에 나타난 繊細한 紋樣、漆器의 彩畵、絹織物의 衣服과 裝飾의 炫燦에 나 자는 自然、美術은 아직도 그대로 남어잇서 오늘의 美人이 쓰는 化粧用品이나 조곰도 달음이 업슬만큼 華美를 다한것이며、또 槨內에서 어든 絹帛의 衣類에는 옛날毅까지 들어잇서 當時 纖維工業의 非常한 發達을 짐작케 하는것等、長久한 時代의 變遷에、人類의 莫大한勞力과 功獻인 文化가 얼마나 盛하엿든가를 생각할에、오늘의 文明만이 가장 進步된 것이라고도 할수업슴을 再三뉘우치니 안흘수업게한다。(계속)

朝鮮古典文學의 階級的觀察論 (五)

具滋均

그리고 비록 文學的才分이豊富하여도 그들은 地閥이微賤하다는 理由로 官路에進出할수업섯음으로 不平의 남어지에 放蕩하고소방한 氣分이 發生하엿다 이런것이 그들의 文學에도 反映되어잇다 鄭壽銅 崔北等의 階級的傳記에서 우리는 이것을 엿볼수잇다 더욱 漢詩文에서보다 時調文學에잇서서 胥吏階級이 朝鮮文學에 寄與한 功獻은 적지안타 肅宗以後의 時調의 中心은 이 胥吏階級의 손에 들어갓다고하여도 過言이 아닐것이다 時調文學의 重要한 文獻인 靑丘永言의 編輯者 金天澤과 海東歌謠의 編者 金壽長도 胥吏階級出身이고 近來의 申在孝 朴孝寬 安玟英도 이 階級에 屬하는 사람이다 朝鮮歌謠史上에 잇서서의 胥吏階級의 地位는 極히 重要한것이라고 생각된다 더욱 音樂藝術家의 大部分은 이 階級에 屬하는 사람이고 또한 朝鮮言語學上으로 重要한 吏文도 그들의 손에서 運轉되든 것이니 그들의 朝鮮文化史上에 잇서서의 地位는 자못 큰것임에도 不拘하고 아직 胥吏階級의 文學에 關하야 研究한 사람이 한사람도 볼수업는 異常하다고까지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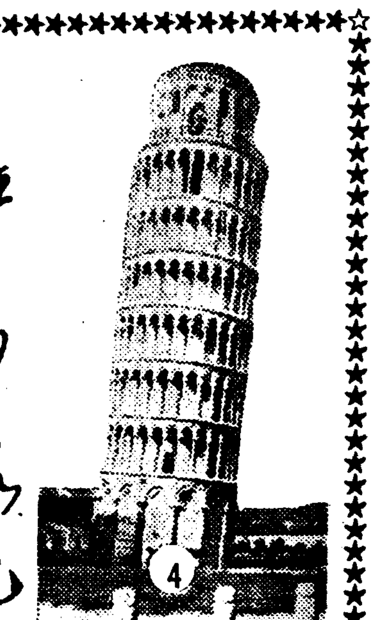
그리고 中人이라는것은 大槪우에말한 胥吏階級과 參差한것이나 그들은 胥吏階級보다는 좀優越한位置에 處한階級으로서 兩班階級과 胥吏階級의 中間層되는것이라고할가 그들은 大槪漢陽의 中央에居住하엿슴으로 이와가튼 稱號를엇게되엇다니 主로譯官、醫官、計士等實業的職業에만 世襲的으로 從事하든사람들이다 따라서 朝鮮의經濟는 이사람들에게 移動되엿다고 할것이다 그러나 中人은 兩班階級에 比하여 極少數에지나지못함으로 그들의 文學的獨立은 업고 文學的으로는 胥吏文學的集團이라는 가 文學的會合이 업섯다 따라서 胥吏文學에서말한 閭巷、委巷、里巷三字中에 中人의 文學도 包含되어잇다。

B 庶流文學

李氏朝鮮에 嫡庶의區分이 始作되기는 國初徐某의 發議라는바 이것이 經國大典에 「庶孼에게는 子孫까지에 仕宦을 許하지말것」을 規定한以後 만흔兩班階級側의 政治家와 英才를 刊行한 大郞庶族들의 許通、許淸儀請로、이法令의 撤廢 또는 緩化를論하엿스나 여러가지事情으로 李朝末까지 그撤廢를 보지못하얏다。李朝에 잇서서의 庶流階級은 胥吏階級과 마찬가지로 하나의重要한特殊階級으로 出現되게되엿다。

近來映畵化까지되여 매우 富傳되는 洪吉童傳은 비록그作者許筠이가 庶孼이 아니라할지라도 許筠이가、庶流文學者인 蓀谷李達에게師事하엿고 洪吉童傳의內容 또한本格的으로當時社會의庶流의 抑鬱한環境을 痛快한筆致로 描寫하여잇다。그러나 그보다도 人에 屬하고 저有名한李朝의四家中에 李德懋、柳得恭、朴齊家도 庶流文學者中의 쟁쟁한者이다。近來에 잇서서도 庶流階級人中에서의 群小作家들이 만히낫섯스나 이재具體的紹介를 省略한다。

羅馬印象記



④

安모이서 寄

다아는바와가티 羅馬의法王이 建設한「바티칸」城은 다른모양으로되여잇습니다 本來 伊太利와는 政府가만히 物價의 不測의 面積을가진 한개의 獨立國입니다 이안에 汽車 郵便所 放送局等이 잇고 돈、郵票가튼것도 羅馬에서 一般이通用하는것과 價値가 퍽비싼데 오직 이바티칸」城內만은 稅가업시 物品이 廉賣됩니다 당배、사탕가튼것은 羅馬의 市價에 比해서 三分之一乃至四分之一의 價格바게안되게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이바티칸」城안에서 사는사람에게限해서만 享有할수잇는特典이지 普通사람에게는 그 許諾되지안습니다 그럼으로 만약 보통사람이 그안에 드러가서 物件을사가지고 나오다가들키면 物價의 몃千倍나되는 關稅(?)를 물게됩니다 目前에 내친구한사람은 거긔가서 멋모르고 담배를 사가지고나오다가 들켜서 罰金을 물게되엿는데 담배한갑에 一千「리라」나물엇다고 합니다 한「리라」식처서 다섯갑에 五千「리라」나물엇다고 합니다 이야말로 二十世紀의 別有天地라고하겟습니다 그리고 또 有名한 古蹟으로는 古羅馬時代罪人들을 囚監하엿다는『카스텔센안젤로』라고하는곳과 郊外에나가면『카타콤베』라고하는곳이 잇습니다 여긔는 千年前에 數千의 敎人이 政府의 迫害에 쫏겨드러가살든 地下의洞窟이라고합니다 이 窟이 엇지나길고 規模가컷든지처음에 이 窟을 發見한사람이 그속에 드러갓다가 사흘만에야 겨우 나왓다고 합니다 내가 그窟을 구경하려갓슬때는 초人불을 들고 同行도 잇섯지마는 엇지나 陰沈해든지 몸이 떨녀서 견듸지못하엿습니다 간혹가 가보면 그敎人이 거긔서 죽은것은 내다가 파뭇지도안코 그대로 내버려두엇는때문에 아직도 骸骨이흣허저 잇는것을보니 毛骨이 悚然하엿습니다 그런데 이속에는 全部 좁으마한 房가리만든것이 몃千個나되는데 거긔서 그敎人들의 一家族이 살엇드라고합니다 이外에도 古蹟이나 이나라의風俗習慣가튼것을 적으려면 얼마라도잇스나 우선이만긋칩니다 (完)

新春懸賞文藝作品募集

新人을 招請한다!!

應募期限 十二月十五日까지

◇**創作小說** 四百字原稿紙七十枚以內에쓰시되 글씨를 똑똑히 정하게 쓰십시요 賞金=首席一篇五十圓 次席一篇三十圓

◇**戲曲** 一幕以上三幕以內의것으로 쓰시되 글씨를 똑똑히 정하게 쓰시요 賞金=首席一篇五十圓 次席 三十圓

◇**詩** 長短은 隨意로하시고 每人이 數篇式 應募해도 無妨합니다 賞金=首席一篇 十圓 次席一篇 五圓

◇**時調** 入選者若干人에게 賞金各五圓式 드립니다

◇**民謠** 入選者若干人에게 賞金各五圓式 드립니다

◇**童話** 슬픈이야기보다、깁부고 기운날이야기를 쓰십시요 四百字原稿紙二十枚以內 賞金=入選若干篇에 對하야 各篇에十圓式

◇**童謠** 入選者若干人에게 賞金各五圓式드림

注意 ●應募된作品은 入選落選을 勿論하고原稿를 一切返還치안습니다 ●보내실때는「朝鮮日報社學藝部新春懸賞文藝係」라고 쓰서야됩니다

朝鮮日報社學藝部 白

新刊紹介

▲野談 創刊號 京城府杏村洞一〇의九六 野談社發行 振替京城一八三六番 定價二十錢 京城總販賣所 京城鍾路二丁目九一 新文堂 振替京城一二三〇

▲아이동무 十一月號 平壤府新陽里三九 아이동무社發行 振替京城一四八〇番 定價五錢

▲劇藝術 第三號 京城府積善洞一六九 新文藝社發行 定價五錢 振替京城一四 劇藝術研究會

黑風 【182】

韓龍雲 作 金麟超 畵

미인계(美人計) 11

「불쾌하게 한것이 봉욱씨를 사랑하는데서 나온것이 겟지오 그러고 모든것을 용서하서요 그러고 결혼에 대하야 확실한 대답을 해주서요」

화명은 목마른데 물 찻는것처럼 말하얏다

「글세올시다 아까도 말슴한것과 가티 저도 생각이업는것이 아니지만 다만……」

봉욱은 다하지안한 말을멈춘다

「다만 어떠타는 말슴이오 아까 말슴과 가티 돈 때문에 그러시오」

「아니여요 돈은 무슨 돈이여요 제가 기생 상당 인가요 돈을 요구하게」

돈이 아니라는 말에 기운을 어든 화명은

「그럼 무어이여요 내몸을 반쪽을 내는일이 잇더라도 드를테니 말슴하시오」

하고 힘잇고 명랑하게 말한다

「말슴하기가 미안한데요」

「미안이 무슨 미안이오 내의 빵을 친대도 관계가 업스니 어서 말슴하시오」

「그럼 말슴하겟습니다」

하는 봉욱은 자리를 고처안고 얼골비츨 바르면서 말을계속한다

「사랑이라는 것은 길어야 하겟지오」

「물론이지오」

「웨니웨니 하지마는、사랑이니 돈이니 하지마는 말슴이야요 결혼 생활 이라는것은 백변해로 하는것이 제일 큰 행복 일것입니다」

「그다뿐 이겟서요」

「그러치오 선생님 백변해로를 못할바에야 사랑이 바다가고 돈이 산가틀 무슨소용이 잇서요」

「소용이 무슨소용、백변해로가 제일이지오」

「그런데요……」

하고 또 말을 멈춘다

「거문고 소리는 끈어지는 대목이 묘하다고 하지마는 봉숙씨의 말슴은 끈어질때마다 알흡니다 나의 가슴은 쪽밥되라는 회산 가튼데 봉숙씨의 말슴은 이른봄의 어린부른 시내물처럼 흐르다 말다 하는것은 무슨 일일까요 그것도 봉욱씨의 미인되는 한가지의 조건이라면 떠할말이 업지마는 백변해로를 찬미하는 봉욱씨로서 나로 하여금 갑수를 하게 하는것은 모순이 아닐가요 저것을 보서요 (창밧게 라화를 가르치면서)봄은 느젓습니다「청사등수(밀)」이 가 아직도 해방이 안되얏슬가요 나로서는 이 이상 더 기다리기는 곤난한 점이 잇습니다 그것이 칼이든지 풀이든지 말슴하야 주서요」

하는 화명은 어느 노래에잇는 구절들을 섞거서 말하얏다

「아모리 미안하야도 말슴하겟습니다、선생님이 지금 병중에 기시지 안허요?」

「그런데요?」

「그런데 선생님의 신병이 이름잇든 병이라 심상치 아니한 병입니다 폐병이라고 다 불행하게 되는것은 아니지오 만 밉이야요 그래도 세상일을 알수가 잇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슴이야요 그말슴이 미안치 안허요」

「네 아라드럿습니다 내가폐병환자여서 쉬 죽을것이니까백변해로를 못하겟다 그런말슴입니다그려」

화명은 다소 흥분이 되면서말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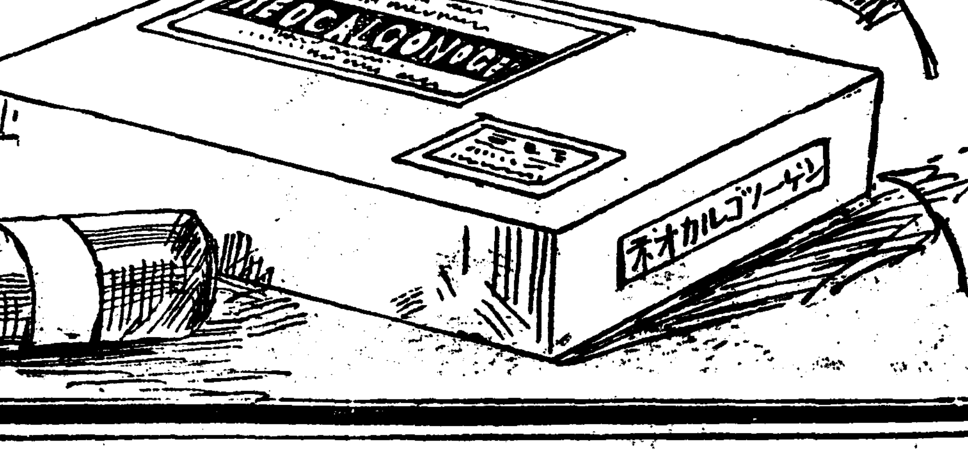
「아니 그러케 박절하게 생각하는것은 아니지만 말이야요 다소 념려가 되지 안된다고할수가 잇서요」

「그러기에 그것을 잘못 생각하신다는 말슴이 아닙니까 몬 그러치오 바꾸어서 생각터라도 그러치 안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단코 폐병에 죽든 안할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사주와 관상을 여러사람에게보앗는데 용타는 사람은 다 팔십 상수를 하겟다고 하엿고 또 병이잇자 하니까 자긔히 용타는 의사는 다보고서 진찰을 하얏는데 병은 얼마 안되야서 낫게 될것이고 첫째로 신경(神經)이 대단히 조와서 양기는 한창이시 조리 오래살겟다고 하는중 입니다 그러아니라 내 자신도 그러하야서 백세는 몰나도 팔십은 넘길것입니다 조금도 념려마십시오」

淋疾及合併症新療法

注射 네오가루고노ー겐 (ネオカルゴノーゲン)

迅速히膿을게하고 白濁을淸澄케하며 疼痛을鎭靜함



淋疾과가티細菌의感染으로因하야 생기는 疾病에는細菌學的療法이가장合理的으로奏效하고淋菌의撲滅이라는根本的治療를 해볼수잇는것이다 그런데從來의 許多한藥劑는化學藥의 힘으로 鎭痛止膿效果를엇기에만汲汲한現狀이다

本劑는 細菌學的治療로 淋菌의天敵을 主劑로 삼고게다가消炎、鎭痛、利尿、防腐의效果가잇는 칼슘及우로사민을配合하야 만든것으로서 淋菌의淸掃과달라서 獨特한 新療法에依하야 抗原量을數倍로하엿다

右와가티本劑는 多數한醫家의 絶讚하시는바로 그臨床實驗에잇서 그偉效를顯出하야 顯著한治療成績을 收得하엿다

即三一五回의注射로急性淋疾의疼痛、排膿、下腹部壓痛등의 自覺症狀을消滅하고 尿의白濁을 淸澄케하야 顯微鏡下에檢査하여도 淋菌의消失을보게된다

特히淋毒性合併症、睾丸炎、前立腺炎、膀胱炎、又婦人의 子宮內膜炎、卵巢炎、喇叭管炎에는手術할박게 道理가업든境遇에도本劑의 注射로能히 治療할수가잇다

用法 一回一筒(二〇cc)式 隔日로靜脈內에注射

包裝 五管入 二十管入

大阪市東區道修町

發賣元 株式會社 田邊五兵衛商店

特約店

京城本町二丁目 山岸藥店 / 同 二丁目 古城藥店 / 同 同 北島藥店 / 同 三丁目 岡部藥店 / 同 同 森川回天堂藥店 / 同 南大門通二 木村藥店 / 同 同 新井藥房 / 同 明治町二丁目 坂井藤太郞藥店 / 釜山府本町 大矢香松藥店 / 同 辨天町 大國屋藥店 / 同 同 藤田藥三郞藥店 / 同 幸町三丁目 ヤマノ藥業堂 / 馬山府 石見屋藥局

平壤府大和町 寶石堂藥店 / 同 森田藥店 / 同 日新藥房 / 同 南大門通 木下藥店 / 木浦大和町 和田回春堂 / 大邱府大和町一 木下忠藥局 / 同 元町 伊藤謙太郞藥店 / 全州府 佐伯仁正堂藥店 / 全羅北道全州本町 田島宇藥店 / 元山府本町二丁目 石田壽生堂藥店 / 清津府明治町 山縣藥店支店 / 羅南生駒町 稻垣日本堂 / 元山相生町 伊藤藥店

全州의 當面問題 (三)

(五) 全州의兩大機關 復興또는設立을 一般有志들에게呼訴

全州支局 一記者

◇民友會復興

전주의번영과 사만부민의 리익을위하고 지방문화의 발전과 시설의 완비를 목적으로한 전주민우회(民友會)는 지금으로부터 약십오년전에 리강원(李康元)씨외 몃 유지의발긔로 조직되엿섯다 집로나 양으로 손색이업시 우리의 측절리해문제를 맙하든 민우회가 가진풍상을 격거나가며 십여년동안 지내오든바 거금 오륙년전 부터 회세(會勢)가 쇠잔하드니 최근에와서는 오랫동안 가지고잇든 회관까지 개인의손에 드러가게되어 간판하나 부칠곳이업시 자멸상태에 빠지고잇다 그후로 이러한비보를 드른 멧멧 지방유지들은 전긔 단체의 부흥책을 강구코저 위원까지 선정하얏섯다하나 아직것 아무러한 소식이 업다한다 물론 위원제씨의 개인사정과 주위관계로 오늘날까지 나려운노릇은 짐작하나 그러나 전전주부민의 공동단체기관인 중대한 책임감을 더 당중 늣겨주는 동시에 곳속로 바라나니 민우회 부흥위원으로 피선된 제씨여! 하로밧비 재건에 대부흥책을 구체실현하여 주기를바라는 동시에 부민된 우리는이러한긔회에 성의를 다하야 전긔 위원제씨와 보조를 갓치하야 민우회를 부흥하기에힘쓰자

◇圖書館設立

지식은 사람의힘이요 무긔다 따라서 민중의 복리를 그사회의 문화에서 구할진대 반듯이 지식보급에 잇슬것이요 지식은 독서 향으로 비로소 시작될것은 누구나 부정못할사실임과 동시에 독서가 업시는 사회의 문회를 건설할수업슬것이다 이러한 필요를늣기고잇슨우리는 때로 쉬지안코 독서력에 열은 하나 개인의몸집적사정과 제반조건이 구비치못하야 불타는듯한 지식욕 이 충만되지라도 소긔의 성공을하기가 어려울 그러함으로 우리는 이러한견지에서 비로소 대중의 독서긔관인 도서관설치의필요를 늣기게 되다 도서관이란 대중적교양에 가장 중요한 긔관일뿐만아니라 불우한 환경에 처한 사람으로서 그의 소지(素志)를 성취하는데에는 다시업는 지식에주린자의 구제기관일것이다 이러한 중대성을 띄인 대중의 교양긔관의하나인 도서관이 우리 전주에 업다는것은 우리에게 막대한수치가될것이다 뜻잇는이사여! 맹진하라 분연히 이사업에 선두가되여 하루밧비 지식공급처인 이 도서관을 건설하도록하라 우리뿐만아니라 후세 자자손손에게 보배가 되고 광명이 될 만년대계의 가장중요한 이사업을 어서밧비 설립하도록 유지제씨! 분발하고 노력하기를바란다

元山府內細窮民 全人口의七分一

總人員數七千七百五十二人 그들의救濟策如何

【元山】원산부에서 조사한 지난시월말일 현재의 원산시내의 세궁민(細窮民)수를 보면 세민이 일천오백칠십일호에 륙천칠백팔십오인이고 궁민은 일백칠십이호에 륙백륙십칠인이 되다 이상을 합하면 일천칠백사십삼호에 칠천칠백오십이인이 되는데 이것을 금번시월말일현재의 전원산호수 일만이천륙백삼십구호에 비하면 일할사분에해당하며 전인구 구만구천칠백삼인에 비하면 약일할삼분이된다 즉전인구의 칠분지일이 세궁민인것인데 부국의엄한이 본격적으로 다닥쳐 올라는 어떠에그들의생활이 일층우려된다고한다 이외에 토막민이 이십오호에 구십륙명이고 불량주택이 칠십구호에 이백팔십팔인이되고 걸인이 칠십구명이되다고한다

寧越發電所促進을 群山府民이期待

低料電氣使用케다고

【群山】조선전력(朝鮮電力)인영월발전소(寧越發電所)는 소화십이년십이월에는 준공되기로되바 동공사가 준공될시에는 동발전소에서는대전(大田)까지 강압선(强壓線)을 가설하야 대전에서 군산(群山)대구(大邱)를 분기로하야 대전군산간에는 륙만오천볼트의 송전선을가설하야 남조선 전긔회사(南朝鮮電氣會社)와 합동하리라는바 남조선 전긔회사에서는방금 남조선수력(南朝鮮水力)과 일키로 이전식을 주고사서 일반 수용자에게 공급하는터인바 조선전력과는 매키로에 일전사리식에 제공을하기로되야 잇슴으로 전등료가 지금보다 상할이상인하될것임으로 군산부민들은 그의장래를 가장긔대하고잇다한다

南浦와安岳間 海陸連絡期成

【鎭南浦】진남포와 대안인 황해도사이의 해륙의 련락을 경조(海陸連絡調)시키자는 문제는 다년간 현안으로만 미루을뿐으로 그저간 부의 재정상태로보아 조만 간에 실현이 불가능 하게되여 일반 부민 은 물론 당국자 들은 항상이의대책을 연구 중이던바 아측까지 구체적으로 실현에까지는 이르지못하엿스나 수일전 부당국자는 이를 직접 평남도와 타협한결과 도에서도 이에대하여전폭적찬의를 표하게되여 압흐로 진남포와 대안황해도 안악군제석(席島)방지방의 해안차도(海岸車道) 종점(終點)에다가 안벽(岸壁)을 자호후 잔교선(棧橋)을 계조하여 주며이나 우마차를 물론하고 집물시운채로 량지를자유로 통행케하여 종래에 소량의화물을 운송함에도 차로부터 배로 배로부터 차로 이중삼중의 로력을 드리게 되든것을 제거시켜서 량지방사이에해륙상교통의 민활을 도모코저방금 준비중이라는바 이것이 실현되는때는 량지방을 통하여 여러가지점으로교통상편리가 크겟슴으로 일반은 속히 실현되기를 긔대하고잇다한다

工費三萬圓으로 護岸工事를繼續

—窮民救濟의한事業으로— 明春初에工事着手

【全州】전주부에서는 부내궁민구제사업으로 오래동안 계속중이든 전주천(全州川)호안공사사업을 래년도에도 시행하리라는데 총공비는 약삼만원가량으로 명년도초춘(初春)부터 실시하리라고한다

雪積에放火騷動

【光州】겨울이 되면 경향각지를 물론하고진첩마다 실화될가하야 률안이 자못큰 요사이에 거리를 횡행하면서 방화하기에 전력을 다하고잇는 정신병자(精神病者)── 전남 광양군 읍내리(全南光陽郡邑內里)에 거주하는 김룡갑(金龍甲)(二八)은 지난 십팔일 밤 아홉시경에 읍내를방황하며 수회에 궁하야 오륙개소의 벼가리에다가 불을노하린 절동리 사람들에게 입대를손동을 이르켯다는바 손해액도 적지안타하며 그는 평소정신에이상이잇는 가련한 정신병자로서 즉시경찰서에서는 엄중히 감금중이라고한다

咸安地主懇談

【咸安】경남함안군에서는 지난십칠일오전 열시에 가야면보통학교에서 지주간담회를 산본(山本)서장각 금융조합리사 각면면장참석으로 개최하엿다는데 출석인원이 백명에 달하여 직긔의 로의사항을 대긴장리에 로의 결정하엿는데 특히 소작관행개선(小作慣行改善)건에들어가 이모작(二毛作)인 모세(牟貰)는 철폐하기로 마장일치 가결되엇다한다

◇討議事項

一、農地令과小作關係法令의周知徹底

二、小作慣行改善

三、小作料運搬

四、小作地에對한公課其他負擔

五、小作料納入方法

六、小作契約方法

其他省略

咸安産業組認可

【咸安】경남함안에서는 일즉부터 산업조합을 설치하라고 일반유지들은 만반의 활동을하든바 지난십삼일부로 인가가되어다는데 임원들은 조합된 모집에 분망중이라는바 임원의 씨명은 다음과갓다한다

▲組合長 具在昌 ▲專務理事 [illegible] 其他省略

傣給生活을辭退 文盲退治에獻身

【汶山】파주군임진면(坡州郡臨津面)에는 호수사천여호에 초등학교는 문산공립보통학교 하나 박게업서서 입학시긔에는 입학난에 배우고시프나 배우지를못하는 아동이만호므로 이것을유감으로 생각한 파주군림진면마정리(坡州郡臨津面馬井里)에사는 윤재방(尹在邦)씨는 경성사는지주 길본(吉本)씨의 후원을어더 삼변전에 축파학교(築坡學校)를 건설하얏다 교원은 윤씨의아들 윤익현(尹益鉉)씨로서 씨는 일즉이 경성 제이고보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후모관청에 근무하얏섯스나 배움에 굶주리는 농가의 자제들을 문맹지옥에서 구출하고자 월급생활도 버리고 자긔돈을 드려가며 수업료를 내는 아동에게는 수업료를주어가며 책이업서서 곤난한아동에게는 책을주어가면서 삼변간을 무료교육을 시김으로 학부형은 물론 당지일반인사들은 윤선생의 칭송이 자자하다고한다

興南에染病猖獗

一日平均二名의死者 卅五日間七十餘名

【興南】금춘이래 흥남읍일원에 각종전염병이 뒤니어 발생하는 때를따라 보도하엿거니와 근간에 더욱그세력이 팽창하야 천연두 지부스 리마엿등 무서운 전염병이 성행중 십월삼십일부터 십일월삼사일까지 삼십오일간에 사망자수도 전에업든 긔록으로 그수가 실로 칠십사인에 달하는바 이제 더욱 엄중경계하야 각가정에 주의가필요하다고한다

全州第一回府議 朝鮮人十二名

【全州】전주부 초대의원 선거개표는 지난 이십일 오후네시반에 전주공회당에서 거행되엿다는데 피선자 한의 십칠명중 조선인의원은 다음십이인이다

▲崔昇烈 ▲崔禮煥 ▲林澤龍 ▲白南姍 ▲朴成 ▲金昌熙 ▲宋柱祥 ▲印昌根 ▲元炳寛 ▲朴泳恩 ▲申時澈 ▲姜完善

四百初等教員參席 鄕土教育硏究會

지난十七日裡里에서

【裡里】전북교육회주최인 제일회향토교육 연구발표회(鄕土教育研究發表會)는 예정과가티지난십칠일 오전구시반부터 리리공립보통학교에서 도내각초등학교원 사백여명의 참석과 전북도학무당국에서는 학무과장림의석과 지방유지의 참가로 성대히 개최되엇섯는데 당일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전아동을 소집하야 일반교수와 특별교수가잇슨후 다시 아동발표와 직원연구발표(職員研究發表)가 잇슨다음 강평을 마치고 동사시경에 폐회하엿다고한다

光州府議選擧結果

【光州】광주부에서는 약일개월전부터 초대부의원선거운동이 시작되여 그결과는 아십일오전구시부터 오후네시까지 광주소학교강당에서 투표하여 동칠시십분에 개표하엿는대 당선자씨명은다음과갓다

崔駿基 星子末久馬 坂口寫助 劉猗相 內山重夫 朴圭海 崔葛植 金在千 松井鶴松 宋和植 李釆順 森安孫六 奧村信吉 安藤進 鄭文讓 藤本一二郎 岩橋朝 池正宜 岡新一相 馬興作 跡部樹治 谷口隆 尹鍾 宮崎榮實 岩男實 菊池光興 奧野論太郎 田中俊助 金相淳 崔泳仲

教育展覽會

【扶安】부안군교육회 주최로 오는 이십삼일 이십사일 량일간 줄포(茁浦)공립보통학교에서 교육전람회를 개최한다는데 일반학부형의 다수참관을 히망한다고한다

異次頓의死 【50】

李光洙 作 金奎澤 畫

알룡이 황내며 나서는것을보고 선마로는 멸시와 긔대를절반 섞은 눈으로 알룡을 바라본다。

알룡은 탐색부리 수염을 흔들고 조고마한 눈을 반짝거리면서,

『이차돈을 고구려에 두고 업시해버려야하오。왜그런고 하면 만일 이차돈을 불러오는 날이면 인자하신─아니 무롱하신─아니 무에라고 할까 어쨋으나 그려하신 상감께서 또 이차돈을 사랑하실것은 정한 이치가 아니오? 또 듯건댄 평양공주께오서도 이차돈을 고구려로 보내신 후회하시고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으셧다고 하니, 이런 때에 이차돈이 살아 돌아오면 평양공주께오서 을고 매달리셔── 아니 미뎃 백성으로 치면 말슴이오 이차돈도 거긔 끌려, 혼인이 되어 그리되면 태자로 봉하심이 되어、그러되면 그 뒤에 어찌되느냐 말이오? 공목 바를손 어대답 좀해 보오。이몸의 근심이란 이것이란 말슴이오。그리고보면 이손은 돌을 일우지못하시어、이손 아드님 시머마로서방남도 일끔되어보시기는──공목마로어떠케 생각하느냐 말이오?』

하고 선마로와 공목을 번갈아 본다。

『어서 말이나 하구려。그말을 왜 내게다 못소? 나는 벌서부터 그 생각을 다 하고 그 걱정때문에 잠을 못 일을 지경이엇소』

하고 공목이 졸리는 모양을보인다。

『그래。그러면 어찌하느냐 말이오?』

하고 선마로가 아까보다 좀더 만흔 긔대를 가지고 알룡을 본다

『이몸만 말슴 엿줍기가 미안하니 어듸 공목바를손이 말슴하시오』

하고 알룡은 공목을 이윽히 바라보다가 공목이 뾰족하야 말이 업슴을 보고、

『그러면 죽기를 무릅쓰고 이몸이한 개책을 말슴하오리다。처세지도를 생각하오면 이런 말슴은 아니하는것이 보신지책이 되오마는 이몸이 이왕 상감마마의 눈밧게 나면서까지 이손을 도와들이기로 하엿스니 무엇은 아끼것소?이늙은 목아지라도 내어대라시면 내어대입지지가아니오? 안그려오니까、이?』

하고 선마로를 본다。

『어서 그 계책이란것이나 말을 하오』

하고 선마로가 성기신듯이 재촉한다。

『글세 이 몸의 충성만을 알아주신다면──』

하고 알룡이 말할 때에 공목이、또、

『쉬! 충성이라니? 원 말 삼가오』

하고 눈을 흘긴다。

『이몸 말슴 아니하겟소 공목바를손이 이런케 말마디마다 틀고나서 아옹거리니 어듸 긔가 질려서 말슴을 하겟소?』

하고 새똑해서 돌아안는다。

『공목바를손 가만이 잇스시오』

하고 선마로가 공목을 본다。

이번에는 공목이 입맛을 다시며 돌아안는다。

『그만큼 이손이 이몸의 충성 아니 충성이 아니면 무에라고 한당、아모려나 이몸의 정성을 그만큼 알아주신다면 말슴을 엿줍겟소。원래사람을 끌리는 법이 어떤고하면、내 손에 피를 못치는것이 가장 하수요、내가 식혓다는 의심을밧게 일을하는것이 버금가는 하수요。사람을 끌리는 상수는 어떤고하니 내 손에 피도 못치지 말고 내가 말도 듯지말고 어느 귀신이 어떠케는지 모르게하는것이오。이것이 상수인데 이것은 참 저마다 못하는것이오。공목바를손 어듸 그만하면짐작하겟소?』

하고 상글상글 자랑의 웃음을 웃으면서 공목을본다。

『어서 말이나 하오』

하고 선마로가 재촉한다。

『아마 공목바를손은 아직 이런 경계에는 어렵도 업스리다。그럼 말슴하오리다。이 늙은 목아지를 내어대고 말슴하오리다。어떠케하는것이 피도 안 못치고 말도 아니 듯고 사람을 끌리는 법인고 하니 끌리랴는 사람의 원수를 차자내어서 그를 일변 충동하고 일변 죽상을 주어서 그로하여곰 원수를 갑게하는것이오。제 원수만으로는 그 일을 하지못하던 사람도 죽상을 탐하야 나서게되는법이오。』

하고 의미잇는듯하게 킷거린다。

保健과口香의常用藥

ローズ仁丹十錢包에

乙女ケース(케ー쓰)添贈

特許 新案 登錄 意匠 商標

毛利村式新脫穀機 有ドラム打機

大阪西淀川區浦江中二

石橋農機製作所

電話福島四〇三三番

秋期男女學生大募集 (改正學則要二錢)

南大門自動車學校

◆第一實習場(裁判所前) ◆第二實習場(阿峴里) 市外各地

校舍 京城府太平通二丁目三六七番地

電話本局(2)〇八六七番 (振替二一〇五六)

ランランポマー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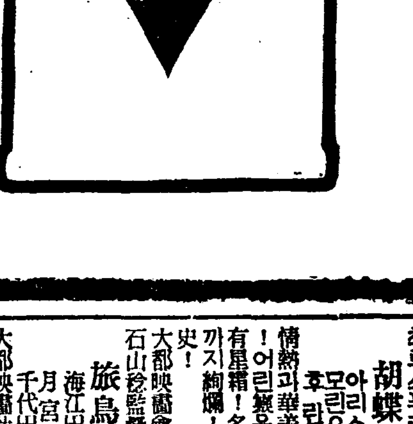
라란포마ー도

男女간에누구나現代人은모다

ランランポマード・全日本一靑히愛用者

가激增橫溢하는ランランポマード

近代紳士의條件을具備하기爲하야꼭 [illegible]을常備하시라



每日一個召上れば…

매일한개씩잡수시오

疲勞업고快活이된다 ─

爽快한刺戟劑오푸로민이、新陳代謝를도우고언제나명랑한明朗性을나오게한다

顔色을조케하고消化를도운다 ─

優秀한榮養素는에네루기ー의根源이되고、鑛物質은血液을淨化하고不良酸을中和식힌다

健康美를닥거내는 ─

비타민A・O・D에豊富한榮養은、連用하면健康을增進하야、近代美를짜내여준다

森永ミルクチョコレート

쵸코레도

五錢・十錢・廿錢

森永製菓株式會社

類猿人타ー잔의復讐

主演……조니와이스뮤라氏

春香傳

主演……韓一松、文藝峰

이機會를잇지마시요

麻浦桃花洞 電龍 三三三

桃花劇場

◇十一月二十二日부터 晝夜五日間特別公開

料金 階上五十錢 階下三十錢均一

MGM映畵朝鮮最初의全發聲

十一月二十一日부터大封切

MGM超特作全發聲日本版

최루스푸래핀氏監督作品!

胡蝶될때까지

아리스・후레듸孃 모린오사리반孃 후란촛도돈氏 主演

情熱과華美에亂舞하는舞臺의女性! 어린瓣을가삼에안고轉轉送旅十有星霜! 多恨한半生에胡蝶이될때까지絢爛! 豪華絢爛을極한女優情史!

大都映畵會社超特作時代劇 石山稔監督作品!

旅鳥親子獅子

海江田譲二氏 主演 月宮乙女、伴淳三郎 千代田綾子、大岡怪童 助演

大都映畵社特作現代劇 大江秀夫氏監督作品!

闇に叫ぶ猿

皇秀人氏決死의主演 琴路美津子 谷定子 助演

貫鐵洞 電光 三九五

優美館

十一月十九日부터堂堂大公開

入場料 階下席 十錢均一

大都巣鴨撮影所超超特作時代劇

巨匠……白井戰太郎……監督作品

近衛十四郎、東龍子……主演

浪人斬風劍

郡健太郎、雲井三郎、大岡怪童、山吹德二郎、久野あかね 共演

パラマウント特作全發聲日本版 フランシス・マーテイン監督喜活劇

ヒヨツトコ夫婦

W・C・フイールズ、アリスン、スキプウオース、ベビイレロイ主演

大都映畵現代劇超特作 三枝源次郎 監督作品

第二の妻

島田文郎、琴絲路……主演 橘喜久子、森野洋子、松村光夫共演

櫻井町 電本 八壹

大正館

十一月二十二日부터

正午十二時부터六時半까지繼續映 晝間二回映畵夜間黃金座公演

料金 階上二十錢 階下十錢均一

파라마운트社超特作奇怪篇全發聲

아ー푸、젠킨 監督

獸人島

汗握과恐怖의奇怪篇

아메리칸、삐치、프로닥순特作品 알、우아랄…로도루、바레치主演

怪異한映畵이는好奇心을짜내

覆面의怪人

夜間黃金座大公演

劇界第一線을占據!! 急轉直下에中央舞臺에出現 初日陣 展望傑作編 朴英鎬氏에特魂을傾注한新作品으로絶對秘藏이엇든

金用浩作 青실 紅실 全二幕

이洞里우물가 一幕

天才的才能兒十餘名歌手出演

黃金座無敵大陣容

方成光、魯伯、張陣、盧孤城、南女雲、金斗燦、李青山外三十餘名 永信、部邊星姬、趙芳草、高龍女、朴 李春雨、朴丹馬、崔仙女、金壽姬、金玉順、朴 姜鉉金、黃金子、李順愛、柳誠愛、金姬愛 金蓮實音樂部池芳烈外十人組합

仁寺洞 電光 三六

朝鮮劇場

十一月十九日封切

每日三回 午前十一時五〇分 午後一時四五分六時四〇分

◆유나이데트社超特作日本版

沃黑안나스텐主演 펄님、홀스助演

또로듸、아스나女史監督作品

女優나나

『나나』『나나』待望既久의名作의登場、女性이거든보라、男子이거든거듭보라

◆유나이데트社特作日本版

廿世紀映畵作品 콘스탄스、빼네트主演

무ー란、루ー주

二人으로三角戀愛?옛날의약이가아니요當世의모ー던러브、라입? 유쾌한시네오페렛타!

◆P、C、L超特作全發聲映畵

川端康成作『サンデー毎日所載』『淺草の姉妹』에서映畵化

乙女ごころ三人姉妹

主演・細川ちか子、堤眞佐子、梅園龍子

全朝鮮第一映畵殿堂 電光 [illegible]

團成社

"中國의幣制改革"
經濟的意義를考察 (九)
徐 椿

그러고 對外爲替를 一志二片半의 率로 維持한다는 말은 英國貨幣와의 交換에 있어서 이렇로 할것은 勿論이지마는 其他 各國貨幣와의 交換에 있어서도 一元對一志二片半의 率을 基準으로하야 交換價格을 決定하는것을 意味하는것이다. 例하면 이에 있어서는 中英爲替 一元對一志二片半을 基準으로하야 그때 그때의 英米爲替時勢로 부터 算出하고, 또 中日爲替時勢를 決定하는데 있어서도 亦是 中英爲替 一元對一志二片半을 基準으로하야 그때그때의 英日爲替時勢로부터 算出하는것이다. 即十一月二日의 英米爲替時勢는 一磅對四弗九一仙八分之七이였든 故로 이 時勢에 依하야 換算된 中米爲替는 百元對二十九弗七十二仙이오, 同日의 英日爲替는 一志二片六十四分之三이였든 故로 中日爲替는 百元對百三圓三十四錢이 된다. 한가지 부처말하거니와 兩國間의 爲替時勢를 말할때에는 어느나라 이름이 우에 노히는가에 依하야 그時勢가 서는 場所가 表示되는것이다. 例하면 中日爲替라고하면 中國上海서 서는 時勢요, 또 日中爲替라고하면 日本서 서는時勢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注意할것은 倫敦서 서는 英日爲替는 때에 따라서 變하나, 日本橫濱正金銀行에서 세우는 日英爲替時勢는 벌서 一年以上을 두고 一圓對一志二片의 時勢로 固定되여잇는 事實이다. 따라서 日本돈 一圓은 對英一志二片에서 固定되여 잇고, 中國돈 一元은 今番의 幣制改革으로 因하야 一志二片半의 點에서 原則上 固定 되도록되여 잇다. 따라서 中國이 萬若, 對外爲替를 이 安定點(一志二片半)에서 固定시키어 준다면 間接으로 日本돈과 中國돈과의 交換價格 即 日中爲替도 安定될 理致이다. 詳言하면 中英爲替 一元對一志二片半(基準)과 日英爲替 一圓對一志二片과의 兩者로부터 日中爲替를 換算하면 百圓對百三圓五十七이 되는데, 前記基準에 變動이 생기지 아니하면 間接으로 日中爲替는 百元對百三圓五七로 變動되지 아니할것이다. 따라서 理論上으로만 말하면 今番의 幣制改革에 따라서 時時로 變化가 激甚하던 中國對諸外國과의 爲替時勢가 安定化하는 同時에 特히 英中爲替及日中爲替가 더욱 安定되도록 되엿다고 볼수가 잇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든지 理論上으로하는말이오, 外貨資金이 不足한 中國은 이 理論的安定點을 維持할 實力이 實際에는 업슬것으로 보는것이 將來事實에 가까울것이다. 그러고 中國이 對外爲替安定의 基準을 一志二片半에 두엇다는 意味로, 中國元貨가 스탈-링 뿔럭에 編入하엿다하면, 日本도 亦是, 現在, 對外爲替의基準을 一志二片에 두고잇스니까 事實上의 스탈-링 뿔럭에 編入하엿다고 볼수업는것이아니다. 何如間, 今番中國의 幣制改革은 實際에 잇서서 그目的하는바대로 實現되기가 甚히困難할것이나, 國이 나라요 國民政府가 政府인 以上은 비록 地域的으로 實施範圍가 狹少하고, 또 命令의 行하는 程度가 徹底를 期키難할망정 어느程度로 實行될것만은 事實이다. 따라서 以上 所論한 幣制改革을 契機로 中國의 貨幣價値가 低落되고, 또는 어느 程度의 인플레이숀이 이러날것은 當然한일이다. 따라서 그 結果는 日本이 마치 金解禁時勢로 부터 金再禁止로 轉換한 것과 가튼 經濟現象이 中國에 이러날것이다. 即, 國內에서는 物價騰貴, 諸種產業振興이 이러날것이오, 對外的으로는 輸入減少, 輸出增加가 이러날것이다. 그리되면 外貨는 打擊을 바더서 日本의 對中輸出이 減少하는 方面으로도 考察할수 잇다. 첫재 中國에 日本品과 競爭하든 英國品은 그만치 不利하게 되고, 또 [illegible] 方面으로도 그러하다.

그러면 今番 中國幣制改革은 어떠한 影響이 있을가 하면, 그것은 銀價에 [illegible] 쩐다. 或은 말하되, 紙幣는 中國人의 貨幣觀念에 맞지아니하는것인故로 어지로 紙幣만을 使用할 수가 업다. 그러면 今番 中國幣制改革이 世界的銀價問題에는 어떠한 影響이 잇슬가 하면, 그것은 銀價를 低落케하지나 아니할가 [illegible]. 今番幣制改革으로는 銀本位制度를 버리고 管理通貨制度로 移行함에 따라 銀의 需要가 減少될것이라고도한다. 그러나 銀은 아직 中國에서 地方에 따라서는 物交換의 媒介物이 되는 程度이나, 世界의 銀價를 보지안코는 알수가 없다.

不利한 狀態가 何故오하면 今番中國은 銀本位를 離脫하는 것이고, 英國이 銀을 印度의 例에 依하야 銀本位를 버리고 世界에 多量으로 放賣할 憂慮가 잇기때문이다. 印度銀本位廢止後에, 今番中國의 銀本位離脫로 銀流通時代가 왓든 世界의 銀價가 다시한번 오지안흘는지 大失敗에 떨어질 憂慮도 따라서 잇다고볼수잇다. (完了)

朝鮮米三百萬石을
短期貯藏키로決定
日本內地米價를維持하라고
月別平均移出制繼續

【東京電話電通】朝鮮과 臺灣兩總督府에서는 今年度 產米狀態가 日本內地의 凶作과反對로 모두 增收의 實狀에 잇슴으로 季節調節에 關하야 農林省의 米穀方針을 基礎로 諸般의對策을 考究中이든바 拓務省과는 協議한結果 日本內地米價維持의 見地上 朝鮮三百萬石, 臺灣二十八萬石의 短期貯藏을 實行하는同時에 從來와가튼 月別平均移出의 制度를今後도 繼續하기로되엿다 그러고 右貯藏에 要하는 經費에 關하야는 低利資金의 融通에依케되야 大藏省에 折衝될터이라고한다

米統施行令
改正을立案
◇……買換中止可能點

【東京電話電通】賣却과 買上이 兩米穀年度에亘한 政府米買換에 對하야 問題되는바 即前米穀年度에도 農林省은 米穀統制法의 任意賣買에依하야 九年度 賣却米의買換을 十年度에 實施치안흠으로 依然 問題化하야 農林省의 違法行爲라고 非難이생겨 農林省은 買換을 안하는境遇에도 規定할 必要가잇다고 하야 過般 米穀諮問會議에 諮問하야 그承認을 어덧슴으로 米穀統制法施行令을 改正하라고 立案中이든바 成案을 보앗슴으로 閣議에 上程하야 곳實施하기로되엿다 그러고 改正點은 米穀統制法施行令 第十四條의 第二項으로서

賣却과買入을 同時期에 안하는 政府米買換에 依한 出廻期에잇서서 買入米價가 最高價格을 上廻할念慮가 잇는때는 買入치안흠을 得함

이라는規定을 附加하엿다

海港地의
正租廻着

各海港地의 正租廻着이 今年은 比較的 遲延되고잇는데 對하야 이것은 十月一日부터 實施된 正租檢查때문이라고 一般은信念하고잇스며 仁川의 精米業者들은 正租檢査의 一時中止를 決議하기까지 하엿스니 目中出廻最盛期에 드러선 黃海道에 對하야 米倉이 그實狀을 調查한데依하면 다음과갓하야 今年은 昨年보다도리어 增加하엿고 正租檢查의 結果는同等顯著를 遲延시킨일은 업다고 正租의品質은 檢查로 因하야 乾燥가 良好하다

十一月二十日現在 黃海道의 米穀廻着狀況은 如左하다(單位石)

▲玄米

九年同期	十年	增加	
一六、〇二三	一三、九五三	六四、九七〇	

▲白米

九年	十年	增加
九、六三四	一三、八〇三	四、一七五

▲正租

九年	十年	增加
四、一五五	一三三、五八〇	八九、八二五

그러고 仁川의正租 廻着이 減少된것은 事實인데 그것은 正租檢查때문이아니고 從來 仁川에 出廻하든 黃海道南部의 米穀이 龍塘浦港의 鎭南浦港으로因하야 今年은 同港에 五十萬石가량 出廻가 豫想되니만치 仁川에의 廻着이 자못減少되것이라 고한다

京城都賣
物價騰貴
【朝銀本店調査】

十月中의京城都賣物價指數는(明治四十三年七月을 一〇〇으로한

米國海外貿易
【華盛頓二十一日發電通】米國商務省發表에 依하면 十月中의米國海外貿易統計는 다음과가티三千百九十七萬五千弗의 出超를示하엿다 (以下單位千弗)

輸出高	二二二、二二五
輸入高	一八九、二四〇
出超	三二、九七五

그러고 十月中의 輸出入이모두 一九三一年三月以來의 月額新記錄으로 今年九月에 比하야輸出十二%, 輸入十七%로 各各增加하엿다

朝銀券二億肉迫
創立以來의新記錄

二十二日繼越의 朝銀券의 發行高는 一億九千九百七十三萬七千三百四十五圓六十錢으로 膨脹되어 昨年最高發行高인 十二月二十六日의 一億九千九百三十萬圓을突破하는 朝銀創立以來 新記錄이 엇든데 米穀資金 其他資金放出이 過增된때문으로서 二億圓突破가 目捷에잇게되엇다

金本位殘壘又復危殆化
佛國金流出增加
原因은法貨低落으로

【巴里二十一日發電通】法貨의低落에 依하야 佛國資本의 倫敦, 紐育向逃避는 顯著히 增加한바 十一月十五日까지 끗날 一週間의 金流出은 九九三、三五四、七九一法으로 昂騰하엿다

▲倫敦 【倫敦廿一日發電通】二十一日의 倫敦外國爲替市場에서는金本位國貨의 價値低落이 顯著하엿다 더구나 財政狀態에 關하야 다시 疑惑을 갓게되는 佛國의『法貨』는 顯著히 大幅으로 動搖되야 二十日七四法七五로 止하엿든것이 二十一日은 七四法九一로 昂騰하고 和蘭貨幣도 二十日七五로러 二九三으로 止하엿든것이 二十一日에 七五로러 三一〇으로昂騰하엿다

▲紐育 【紐育廿一日發電通】金本位貨의 軟調는 紐育에서도 二十一日 注目되더니 紐育市場에 佛國法貨, 瑞西法貨가모두 多少動搖되어잇다

香港幣制改革
新貨幣를發行

【香港廿一日發電通】지난九日香港政廳의 銀幣出禁止及 幣制改革을 一日發令한以來 二十一日까지 發行한 新貨幣는 一弗紙幣百萬

佛國銀行
再次利上
三分을四分으로

【巴里廿一日發電通】佛國銀行에서는 公定割合利率을 一分올리어 五分으로 할을 發表하엿든데 同銀行에서는 지난 十四日 三分에서 四分으로올렷든것이다

佛國法貨의
平價再切下?
日本爲替銀行側觀測

【東京電話聯合】屢次危機를傳하던 法貨는 또 新不安에싸여 平價切下在近을 傳하고金의 國外流出이 激增되엿는데 日本爲替銀行에서는 當分間平價切下가업스리라고 보고잇다 即 今回의 法貨가 不安視되기에至한것은 佛國이 對伊經濟制裁에 參加한것으로 伊太利와의 貿易이 杜絕되고 同國의 國際收入을 惡化케할것과또 重要原因으로서는 라발首相에게 對한 財政獨裁權이 今年中에 期限이 到來하야 再獲得이 甚히 危殆視되며 하야 佛財政의 前途가 不安視되기에 至한等에 基한것이나 假令一部에서 平價切下가 主張되드래도 永年固守해온 信仰에까지 至한 佛國民의 法貨擁護가 直時 崩壞될것이 아니다. 最後의 境遇에 至하기까지는 多少의 苦痛을 참고라고 平價切下에는 出치안흐리라고본다。

香港政廳은 一個年前부터 準備中이다 그러고 確固한바에依하면 香港政廳은 一個年前부터 港幣制改革은 英國의 旣定計劃이라고 斷定한다

즉 一仙白銅貨四十萬弗, 五仙白銅貨二十二萬弗으로市場에서 回收한 現銀은 四十乃至五十%에 不過하고 香港弗의 使用은 南中各地에 增大하는 事情을 보고 一層新貨幣를 增發하라고準備中이다 그리고 確聞한바에 依하면 香港政廳은 一個年前부터 이번의 準備를 하여온 모양으로 當地消息通間에는 中國及香港幣制改革은 英國의 既定計劃이라고 斷定한다

蘭印織物
輸入封鎖
廿一日命令公布

【바타비야二十一日發電通】蘭印政廳은 二十一日 織物輸入制限令及 織物業 營業制限令을 公布하엿는데 이번의 物輸入制限令은 一九三三年에 常時 織物輸入制限令中 第三條를 改正한것으로 輸入許可制度로하고 有效期間은 十一月二十一日부터 압흐로 十個月間 國別制定은 依然和蘭本國에 優先的地位를 주엇다고한다

日蘭會商曙光
廿八日本會議開催

【大阪電話電通】日蘭會商의 前提가 될民間當業者間의 豫備會商은 二十一日 蘭印側과 日蘭側이 神戶에서 折衝한 結果 二十八日 午後二時부터 神戶오리엔탈·호테ㄹ에서 本會商을 열기로決定한바 이것은 지난 三月三日以來 八個月만에 會議케되엿것이다 兩者의 態度는 協調的으로 急速解決은 어려우나 雙方의 讓步로 圓滿한 會商進捗이 期待된다

米日爲替暴騰

【紐育二十一日發聯合】今日의米日爲替는 前日과 比較하면 買二十八弗七十仙으로 十一仙高 賣二十八弗六十七仙으로 十二仙高이다

經濟界消息

○穀聯幹事會開催＝朝鮮穀物協會聯合會에서는 二十八日 午前十時부터 京城俱樂部에서 代表幹事會를 열고 左의 件을 附議할 豫定이나

一、常用肥玄白米에 對한 特別檢查要望의件

二、玄米乾燥程度를 低下할 要望의件

三、米의 乾燥程度引下를要望할件

四、會館建設에 關한件

五、正租檢查上 改善을 要한 다고 認할事項

그리고 右諸案의 外에 米穀自治管理案에 對한 意見도交換할터이라고

國運을買한다

一月以降 十一月中旬까지의 買易累計는 千六百二十一萬三千圓의 出超로 昨年同期의 入超九千二十四萬四千圓에 對比하면 雲泥의差이다. 有吉, 蔣介石氏의會見이 不成功이리라하며 北中의風雲이 逆轉되리라는 電報가잇스나 설령日中衝突까지의 險惡한 場面이잇드래도 國運을賭하는日本의 處地로서는 決코實材를풀수업다는 强氣論이有力한 實情이며 新高價에서 新高價로 馳驅하는 이市勢는 括目할만한 活躍이 期待될모양이다

이런觀測도잇다

事業界, 貿易, 低金利, 外交狀勢等包括的樂觀氣分에 싸이어잇는 市場은 年末切迫과共히 果然어떠할가? 人氣는 機會잇슬때마다 買氣를 誘發하겟스나 一應買盡하면 市場建玉보다도 巨額의所持株가 걱정이되어 反動的賣氣를 催할지도모른다. 目前買方의 敗退에依하야 若干의歲末市勢氣分을出하고나서는 表面의押目買氣에抗하야 市勢는 軟調量示케되리라는 消極的觀測도 一方에 잇는모양이다。

商況 (廿二日)

株式 新高價로 飛躍

前場飛躍 昨後場東京大引暴騰이 뒤를이어 今前場은 買氣爆發하야 大活躍을演하고 結局昨後引에比하야 東新四圓十錢高인 百七十五圓丁 大新一圓七十錢高인百三圓丁 日產一圓高인八十二圓七十錢 朝新三十三圓六十錢 鐘新百四十九圓丁에 各大引 朝取八十四圓丁으로 七十九圓八十錢 拓新十七圓丁이잇섯다

後場反落 後場은 東新百七十三圓八十錢, 日產 八十二圓十錢 大新百二圓五十錢 朝新三十三圓六十錢에 利喰反落하야後一息狀大引

東新無押爆進

東新百七十圓以上이되고보니까 賣買雙方의 地位가 顚倒되어 決算月로 早受渡의때문인지 實際의 當限勝負를 決할 廿一日의 東京 大阪의 長期는 雙方의 敢退로 東京이 意外로 또 氣騰되어 短期後引이 東新 百七十三圓五十錢이런 新高價를 出하고 今前場은 買氣一層 拍車를加하

實物株前場取引

▲東邦電力 五五.五〇▲大同電力 五五.〇〇▲同新 三〇.〇〇▲鹽水港糖 四四.〇〇▲京南鐵道 三六.〇〇▲日滿아루미 三〇.〇〇▲日本電工 五〇.〇〇▲同新 四三.〇〇▲電化新 一五.〇〇 (賣買高 三〇〇枚)

米期 少戻이나 頭重

前場小戻 昨後場 阪地三十圓七十錢止와共히 二十八圓四十八錢에 據을止한 當市場은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圓八十二錢인十二丁高를반하고 二十八圓五十四錢인 六丁高로據을歸한後 阪地七十二四錢으로 反齊와連 아 四十六錢까지 低落하엿다가 阪地七十八錢으로 返戻止揚할때 作하야 五十錢의二者同價로據合

鐵入도不足乎
實收又復減收?

日本內地米作第一回豫想은 一時五千八百萬石 乃至 九百萬石說이 濃厚하야 市勢도 不伸不押으로 保勢量文書可능性이더니 結局 五千七百五萬石으로 三百四十餘萬石의大減收를 示하엿스며 따라서 市勢는 百餘丁의昂騰을 告하엿다 勿論 日本內地米作도 二個年繼續의大凶作으로 前途需給難의不安이 업지아니한데다가 又復 擴頭하야越鐵入不足說이

當地意外頑强
農家賣惜關係?

後場頭重 後場은 二十八圓四十錢에 五丁低로 始한後三十六錢으로 四十九錢에 올랏고 五十四十六錢으로 四十二에 止하엿다

來客買地場賣의 關係로 容易히 高價를 許하지안는 當地先限은 昨後場 阪地七十錢으로 下押한에도 不拘하고 反히 四十八錢으로 跳返하야 强硬히 據를止하엿고 今朝에 入하야는 東市의 八錢高와 阪地의 十二錢高를 入하야 二十八圓五十四錢인 六丁高로 寄하엿다 그原因이何에 在한가를 窮하면 地場側의 態度는 아즉變치안코 實貨成을 하는모양이나 中農以下의 實物은 旣히 一巡한觀이잇고 中農以上은 日本內地米의 第一回豫想의 大減收量唯一한 動機로하야 又一層 賣惜方針을 鞏固히 할판이니라 郡當局으로서도 實情을 踏驗한오로 地方出廻가 宛然히 例年보다 稀薄하여젓다 此等의 事情을 窺한地方側은 買注文을 發하며 그外 來客側도 擧皆 强化하야 買一貫의持久戰을 繼續함으로 當地의意外頑强을 見함에 至하엿다 果然 此現象을 維持하다가 昂騰의 途程에 入할지 又는 그의反對로 實米威脅의落을 할지 此가 注目處이다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 限

❶ 一〇〇〇	萬 一〇〇〇	❶ 一五〇〇
❷ 二〇〇	翠 二〇〇	❷ ...
❸ 三〇〇	○ 一〇〇	...

中 限 / 先 限 [illegible]

各地正米

京城保合 賣買共히 閑散하야 實物商이 나 賣行停頓狀態로 買氣金利不振이오 據面은 極히閑散인丸仁

堂島前場賣買【大阪電話】▲賣方＝東京側、地場中谷 ▲買方＝地場小口側、株式側

市場六感

株 一部天井觀에不拘코 東新은 新高價로 驚異的 飛躍이어 鐵▲크게보면 制限업시 樂觀할수잇는 市勢로서 弱氣로서는 反動이니 呼吸이니 以外에는 確實한 論據가업다▲國際關係를 憂慮하고 賣다가무시무시▲勿論 그런大樂觀點에 到達키까지에는 重大한危機가잇슬지도모르며 國內事情으로 悲然樂觀만할수도업서 警戒論이 잇기는하나 大勢를不良케보는者는 업는모양▲京城에 支店을 開設키로된 山一證券本店에서 十年 勤務한 郡玉鉞君이 京城支店으로 轉勤케되리라고

米 朝鮮의 米作은 豐作이라 할수잇스나 日本內地米作이 大凶作이니 朝鮮의 如干豐作으로서 前途需給問題를 解決하지못할것은 事實▲그러한 關係로 日本內地로서는 朝鮮米의 移入을 例年보다 又一層 歡迎하게될모양이니 朝鮮農家의 賣惜方針은 갈사록 鞏固할모양▲日本內地는 鐵入不足說이 又復 擡頭하야 實收額은 第二回豫想보다 又一層 減收云云▲果然 日本內地는 二個年繼續의 大凶作인만큼 明年度端境期의 米價는 近年에 못지못한 破天荒의高價를 示하고야말모양이지 ▲本年產米의 公定米價는 昨年보다 一圓以上의 引上을한다나 그러면 三十二圓五十錢이어다 ▲政府는 此邊의 公價를 上廻하는 때는 拂下로서 高價를 防止하여야할모양 그러나 買上을 하지안코는 拂下할餘力이 업슬것이다 ▲그럼으로 古米의 拂下를 하는 一方으로 新米의 買上이 必要 ▲何如間 拂下와買上을 實施하는상흠에 波瀾이업지안흘모양

仁川不變 產地는 依然히 賣惜人氣濃厚이나 日本內地의買氣가 散見될뿐인 丸仁三로 當買二十八圓三十錢 四等二十八圓丁 一等白米二十圓五十錢

木浦不動 原料正租의 買付難과 採算不合으로 產地의賣氣가 極히 消極的이나마 買方이 形勢傍觀으로 買取不振이오 繼續하야 不變唱인 丸ホ 三等二十八圓七十錢 四等 二十八圓 五十錢 一等白米 十二圓八十錢

群山小弱 定期의 伸惱商狀을보고 買氣委縮하야 市況이 五錢低의 小弱을 示하엿스나產地의 態度는 依然强硬 一 示하야 小口의 換金的賣物에 限한 發ク三等 二十八圓六十五錢 四等 二十八圓三十五錢 一等白米 十二圓六十錢

米의 不勢를보고 賣氣七錢軟化인 角フ三等二十八圓四十錢 四等二十八圓十錢 一等白米十一圓二十七錢

大邱軟化 實物이 極히 鈍한데다가 賣氣買取不振이오 期成立되어 賣配五錢低理인 角フ三等二十八圓九十錢 四等二十八圓五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八錢

釜山小落 市場實物 四千五百臥、定期不勢와 日本內地入注等으로 今朝는 新裝賣가 有暢되고 先買物의 實需과 實用的補充賣로 三十七五臥의 取引이 入圓丁 一等白米 十一圓七十五錢 等 二十八圓三十錢 四等 二十

仁川海岸町三ノ一
趙俊鎬米豆取引店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一二六五

仁川
吉村取引店
米 福

買賣 分析 金白金銀
金城商會
京城鍾路一丁目二十二番地
電話光化門 二九三七番

金銀 買入
京城府貫鐵洞一三四
奬金號
電話光化門 一五九九番

今日財界 (廿二日)

◆米
仁川期米 先限 二八、四二 (單位圓)
大阪期米 先限 三〇、七七
三等米 二八、二〇
正租(仁川) 上 一石
一斤 下

◆株
朝新 ...
東新 ...
日產 ...

金 圓 廿二日 ◆海外經濟◆ ◆新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 ◆東京金利◆ ◆大阪金利◆ ◆外國爲替◆ ◆金買入價◆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京城雜穀◆ ◆仁川大豆◆

商品 廿二日 ◆京城綿糸布市勢◆ ◆京城絹布◆ ◆日本麥粉市勢◆ ◆天가보期麥◆ ◆麟油冲價◆ ◆鏈搾粕冲價◆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株式 廿二日 ◆朝取短期◆ ◆限定代引日步◆ ◆東京現株◆ ◆東京短期取組◆ ◆大阪短期◆ ◆大阪長期◆ ◆大阪短期取組◆

期米 廿二日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朝鮮內各地期米◆ ◆大阪期米◆ ◆大阪期米取組◆ ◆大阪市中在米高◆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商品 廿二日 ◆大阪綿糸◆ ◆大阪棉花◆ ◆各地人絹◆ ◆橫濱生糸◆ ◆大阪砂糖◆ ◆海外砂糖◆ ◆各地正租市勢◆(單位錢)

[illegible]